

김태흠 지사 “성화약진 원년, 50년 · 100년 미래 다진다”

신년 기자회견 통해 “대한민국 경제산업 지도 새롭게 그릴 것”



민선8기 3년 차인 올해, 힐끗충남이 충남의 미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발판 마련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

김태흠 지사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를 ‘성화약진(成和躍進·성과와 도민 뜻을 모아 큰 도약을 이룸)’ 원년으로 삼고, 충남의 50년 · 100년 미래 준비에 도정 역량을 집중, 대한민국의 경제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려가겠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올해 충전 추진 과제로 농업·농촌의 구조 개혁을 먼저 꺼내들었다.

김 지사는 “복지도 산업도 아닌 농업을 돈이 되는 농업으로 재구조화 하겠다”며 “스마트팜 825만m² 이상 조성으로 청년농 3000명을 유입시키겠다”고 말했다.

돈이 없어도 열정만 있으면 토지 확보와 교육·금융·시공·경영설계 등을 받을 수 있는 창농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뜻이다.

고령은퇴농 연금제 확대를 추진하고 농촌리브루터너 500호와 충남형 실버홀 16개 지구 등을 조성해 농촌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정보통신기술(CT)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지와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등을 통해서는 미래 농업 선도 모델을 육성한다.

김 지사는 또 국가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탄소중립경제특별도로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

를 성장 기회로 만들고, 지역경제 연착륙을 위해 석탄화력특별법 제정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김 지사는 “탈석탄에너지 전환, 산업구조 재편,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 탄소중립 연구개발(R&D) 기관 유치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선8기 ‘1호 과제’인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관련해서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수소경제 등 미래 산업 거점으로 육성, 최첨단 제조산업 메카이자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의 9개 협력 과제와 함께, 아산항 개발과 경제 자유구역 지정 등 자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회 발전 특구 지정·추진과 5대 권역별 발전 계획으로 청사진을 마련하는 한편,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공공기관 유치와 이민관리청 유치,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공주대 의대 신설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진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라고 전제한 뒤 “도에서는 저출산 대책위원회를 재정비하고, 도가 할 부분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고 행정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에 대해서는 “성과로 증명하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밤의를 목표로 추진한다.

특히 시는 KTX역 설치를 위한 사업 착수 협의를 본격 추진하고 대전·세종·충북을 연결하는 광역 철도를 조기에 추진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경제·교육 특화지구 조성을 통한 지존경제도시 실현을 위해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은을 하반기까지 지정 승인(산업부)을 받을 예정이다.

시는 우선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어려, 행정수도에 걸맞은 기능보강을 위해 행정 조직과 인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행·재정 특례를 마련한다.

상반기까지 연구용역 및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전부개정안을 마련

명해 낸 한 해”라고 자평했다.

김 지사는 먼저 “정부의 역대급 긴축재정 속에서도 도정 사상 최초로 정부예산 10조 원 시대를 개막했다”라고 강조했다.

도는 올해 정부예산 10조 2130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조 1541억 원(12.8%) 많은 규모로, 사상 최대 증액이자 사상 첫 10조 원 돌파 새 역사를 작성했다.

국내외 기업 유치는 민선8기 1년 6개월 만에 128개사 18조 731억 원을 기록, 민선 7기 4년 실적(14조 5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방치된 도정 현인을 해결했다”라며 내포 종합병원 조기 개원, 서산공항 건설 본격 추진, TBN 교통방송국 척공, 장항국가기술지 북원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등을 설명했다.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넓은 규모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2개소 선정,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국립 경찰병원 분원·식품안전 관리인증원·국립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유치 등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타 시도와의 살비싸움에서 밀리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비 SOC 분야 역대 최대인 9500억 원 규모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협력 대상 선정과 1조 6000억 원 규모 양수발전 협력 대상 선정, 3258억 원을 투입하는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등을 꺼내며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굵직한 공모 사업 유치 성과를 거뒀다”라고 말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근거인 보건의료기술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에 로드맵 제시와 공모 없이 천안 지정 설립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국회에 물려고 있는 경찰복지법, 석탄화력특별법 등 7개 법안을 이쉬운 점으로 꼽으며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정환기자

= 본/사/내/방 =



설동호 대전교육감,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만들것”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4일 대전투데이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새해에는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으로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한다… 위기학생 조기발견 검사도구 도입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서 상시 활용

앞으로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필요로 상시적으로 활용 가능한 위기학생 선별 검사도구가 도입된다. 또 학생들의 감정·충동 조절, 스트레스 관리 등을 위한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발견된 학생들의 지역 내 전문기관 연계

율을 높여 학생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돋는다.

이 밖에 학생이 스스로 긍정적 인 태도를 갖고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마음챙김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2025학년도부터 시범 운영한다.

김정환기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경제자족도시에 매진”

류제일 미래전략본부 주요업무 발표… 지역 균형발전 · 한글도시 조성

세종시가 4일 연내에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발의하고 경제·교육·기회발전 특화지구 지정에 매진한다고 밝혔다.

류제일 미래전략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실질적 행정수도 위상 기능 강화 ▶미래전략사업 실현 선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품격 높은 한글도시 · 최첨단 스마트도시로 도약 등 네 가지 분야별 올해 추진 업무를 설명했다.

시는 우선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어려, 행정수도에 걸맞은 기능보강을 위해 행정 조직과 인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행·재정 특례를 마련한다.

상반기까지 연구용역 및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전부개정안을 마련

련하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밤의를 목표로 추진한다.

특히 시는 KTX역 설치를 위한 사업 착수 협의를 본격 추진하고 대전·세종·충북을 연결하는 광역 철도를 조기에 추진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경제·교육 특화지구 조성을 통한 지존경제도시 실현을 위해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은을 하반기까지 지정 승인(산업부)을 받을 예정이다.

시는 우선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어려, 행정수도에 걸맞은 기능보강을 위해 행정 조직과 인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행·재정 특례를 마련한다.

상반기까지 연구용역 및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전부개정안을 마련

구 지정 추진에 힘을 쏟는다.

경제특구-학교(대학·고교 등)를 연계한 인력양성 방안 등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올 상반

기해 신청해 미래 교육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중입주가속기 암치료센터를 유치해 중부권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의료복지 허브 도시로 성장할 방침이다.

내규모 사업비가 수반되는 호텔, 대관립차 등의 사업은 중장기 적으로 민간부자를 적극 유치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5-1생활권의 세종 스마트 시티 국가시범도시는 선도지구 분석 개발을 위해 연내 개발·설계계획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건설 사업을 착수 할 예정이다.

류 본부장은 “올해는 그간 밀그림을 그려 놓은 정책사업들의 실현을 통해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선 기자

교원 보직수당 2배·담임수당 50% 인상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배치…새학기 맞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

교육부는 약 20년간 동결됐던 교원 보직수당을 15만 원으로 2배 이상 올리고, 담임수당도 13만 원으로 50% 인상하기로 했다.

또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치하는 등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교원 수당 인상을 확정, 이달부터 지급하는 등 교권 회복 후속조치를 올해에도 지속해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이달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을 비롯해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를 인상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동결됐던 보직수당은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2배 이상 올리고, 담임수당도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0% 인상한다.

이번 인상으로 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합당한 보상 부족 등으로 악화됐던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해소되고 교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교사의 업무 특성과 맞춤형 지원 요구 증대 및 현장 고충,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 증가에 따른 역할과 책임 확대 등을 고려해 특수교육수당도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5만 원 올린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도 각각 5만 원씩 올려 교장은 45만 원, 교감은 30만 원으로 인상해 교권 보호, 민원 처리, 학교폭력 대응 등 확대된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교원 수당 인상뿐 아니라 지난해 시행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을 현장에 안착하고 교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집중하기로 했다.

현재 교육부는 법부부·경찰청 등과 협력해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시행에 앞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150 건 이상의 교육감 의견서가 조

사·수사기관으로 제출됐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통계상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판단이 연 1700여 건인 점과 비교하면 40% 이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 대응 체제도 개선하고 있다.

단위학교의 통화녹음 기능, 교권 보호 통화연결을 민원면담실 등 민원 대응 환경을 조성하고, 단위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처리하는 통합민원팀을 교육(지원)청에 설치했다.

새 학년도 3월 개학에 맞춰 민원 대응 안내서를 배포하고 교권 침해 직통번호(1395)도 개통할 예정이다.

더불어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여성 민원은 교육활동과 협력해 교원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해 교권침해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오는 3월 말 개정·시행되는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교원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강회복 지원방안

을 발표했다. 이후 3개월 동안 교원 대상으로 1만 2000건의 심리검사·상담 및 전문치료 등이 이뤄졌다. 이는 지난 2022년 1년간 2만 2000건(3개 월간 5500건)에 비해 2배 이상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교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2년마다 교원이 정기적으로 겪는 받도록 해 교원의 마음건강을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소송 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교원배상책임 보험 표준모델을 개발했다. 올해부터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역학교 안전공제회 등과 협력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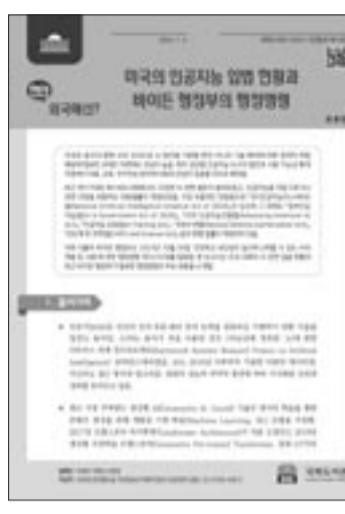
또 교육활동 침해학생을 교원과 즉시 분리하고 교원자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해 교권침해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오는 3월 말 개정·시행되는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교원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이정복기자

미국의 인공지능 입법 현황과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국회도서관『현안, 외국에선?』(2024-1호, 통권 제73호) 발간



기술 발전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규제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의회의 인공지능 관련 입법 현황과 2023년 10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최근 다양한 AI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AI를 직접 다루거나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연방법률이 제정되었다. 가장 포괄적인 행정명령으로는 「국가 인공지능」이나 티브법(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 Act of 2020)이 있으며, 그 외에도 「정부인공지능법」(AI in Government Act of 2020), 「인공지능 교육법」(AI Training Act) 등이 있다. 이들 행정명령은 AI 기술의 이익 증대와 위험성 완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향후 의료, 교육, 국가안보 분야에 미국 의회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10월, AI에 관한 행정명령 제14110호 「안전하고 보안성이 높으며 신뢰할 수 있는 AI의 개발 및 사용(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을 발표했다.

행정명령 제14110호는 「안보·보안·안전」을 위협하는 AI 기술의 개발과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며, 총 8가지 주요 정책 영역, 즉 ▲안전 및 보안, ▲혁신 및 경쟁, ▲근로자 지원, ▲AI의 향향 및 인권에 대한 고려사항, ▲소비자 보호, ▲개인 정보보호, ▲연방기관의 AI 사용, ▲국제 관계 리더십 영역에서 연방정부 기관이 준수해야 할 100개 이상의 지침을 명시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2022년 하반기부터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GenAI)이 개발되어 그 사용범위가 날로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AI 기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상하고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의 입법례는 우리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김성구기자

당진시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종합 2등급 달성

92개 지방의회 평균 68.5점보다 높은 73.6점 받아

도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에서 당진시의회는 평가 대상인 92개의 지방의회 평균 68.5점보다 높은 73.6점을 받아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으며, 특히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지표에서 모두 2등급을 받아 지방의회 첫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상위권의 성적을 거뒀다.

그동안 당진시의회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계획 수립 ▲조직문화 개선 실천 운동 ▲당진시의회 청렴 교육 이수제 실시 ▲공무원 노동 조합과 청렴 실천협약 체결 등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의 청렴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당진=최근수기자



당진시의회는 4일,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당진시의회 반부패·청렴교육」에서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진시의회는 2023년 국정감사와 함께 청렴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출한 후 청탁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당진시의회는 2023년 세종시의회

는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전개했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안이 본회의 통과했으며, 종청관 「자제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3년 세종시의회는 청렴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대표단 차원에서 청탁금지법을 통과시켰다.”라고 밝혔다.

당진시의회는 4일, 국민권익위

원회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

렴도 평가」에서 종합 2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과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국민권익

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매년 전수 평가하는 제도로, 특히 올해는 최초로 75개의 기초 시의회가 평가 대상으로 들어가, 기존 17개 광역의회를 포함 총 92 개의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

박성규 총선 예비후보, 만인산농협 거점 스마트 APC 방문

농업경제 살리기! 스마트팜과 APC 패키지화

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 방문 소감을 밝혔다. 또한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거점 스마트 APC」의 성공사례를 널리 알리고 농산물 유통의 스마트화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만인산농협 출하 농가의 평균 소득은 2023년 1억 5000만원 수준이다. 박성규 예비후보는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현장을 찾는 소통행보를 지속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스마트팜과 연계된 스마트 APC 사업을 논산·계룡·금산 지역에 특성화시키는 등 농업정책을 내실있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복기자



국민의 힘 박성규<사진> 논산시제룡시금산군 총선 예비후보가 3일 윤석열 정부의 농업분야 국정 과제인 ‘농산물 유통 디지털 혁신’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만인산농협 거점 스마트 APC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박성규 예비후보는 “농업·농

촌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고령화

로 어려움과 미주하고 있어 농

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은 농가

의 소득향상과 농산물 수급 안정

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만인산농협 출하 농가의 평균 소득은 2023년 1억 5000만원 수준이다. 박성규 예비후보는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현장을 찾는 소통행보를 지속하여 우수사례

를 발굴하고 스마트팜과 연계된 스마트 APC 사업을 논산·계룡·금산 지역에 특성화시키는 등 농업정책을 내실있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복기자



어청식 총선 예비후보 제2호 농업분야 공약 ‘다시, 3농혁신’ 3농혁신 방식의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추진 등 6개 공약 발표

법 제정 추진 ▲농자재 가격지원법 제정 추진 ▲농촌정주·농민 기본소득 도입 추진 ▲기후위기 및 식량안보를 위한 퀄리티농산물 저작법 추진 ▲경자유전의 원적 사수 ▲산업·의료폐기물 국가책 임제 등 6개다.

어청식 예비후보는 “안전 지사

의 3농혁신은 전국 대부분의 농업

분야 전문가들이 극진한 농업정책

이자,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

천하고 그 효과를 입증한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3농혁신을 모델로 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추진하겠

다고 밝혔다. 이어 “3농혁신의 핵

심인 민주화 방식, 정책간 융·복

합의 내용을 충실히 담고 민주적 운영과 법적 권위를 담보로 한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해 3농혁신의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어 후보는 “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국제 유기의 급격한 인상이 고스란히 농자재 값 상승으로 이어져 농민들의 소득만 줄고 피해만 늘었다”며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과 연동한 농자재 값 지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정주·농민 기본소득’은 연 60만원 수준의 농민 수당을 기초노령연금에 준하는 연 380만원 수준으로 늘려 농촌에 정주하는 것만으로 일정 정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지는 않겠다.

김정환기자



김형렬 행복청장,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김형렬 행복청장은 1월 4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였다. 현충원 참배에는 행복청 차장, 각 국장,과장 등 20여 명이 함께 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현충원 참배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김연 단국대 의과대학 연구교수는 4월 “더 이상 민생이 침몰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참담함을 지켜볼 수만 없다”고 선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안병 예비후보인 김 교수는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와 경제를 회복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지금은 윤석열 정권 독재에 맞서 싸워야 할 때로 나라가 어려워지면서 앞장섰던 애국 충청의 자존감을 지켜내겠다.”며 “시민의 뜻을 현실로 담아낼 존재감 있는 천안의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교육과 복지전문가로 소개한 그는 올바른 국정운영과 중



“지역 주민 비서실장 역할 톡톡… 서산공항 · 태안 고속도로 유치 자신”

충남 서산 · 태안 성일종 국회의원

2024년 새해를 맞아 지역민의 비서실장이라고 자칭하면서 8년간 국회의원 직을 수행중인 성일종 국회의원은 본지 기자가 만나 보았다.

생에 기여하는 성과도 올렸다.

넷째, 기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기맹사업법) 대표 발의 및 국회 본회의 통과 시켜 프랜차이즈 본사가 기맹점에 특정 거래를 강제할 경우 해당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공급가격 산정 정보를 필수적으로 계약서에 포함해 기맹점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기맹점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여 전국 모든 프랜차이즈 기맹점주들의 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성일종 국회의원, 정치하는 이유는?

서산 · 태안의 발전을 위해서는 능력과 경험을 고루 갖춘은 물론 노련함까지 겸비한 성일종 국회의원은 지역의 발전시킬 정치인이 될 것이라는 8년 전 지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민과의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포부로 말문을 열었다.

2선의 국회의원(8년) 임기 동안 지역에 거액의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을 확보해 본 경험과 당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국가안보위원장’,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제2서산, 태안의 발전을 위한 적임자라고 생각하여 3선 도전을 피력했다.

그는 정치인 뿐만 아니라 누구나 고향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정책의장과 국가안보위원장은 지난 정치역 경험을 바탕으로 서산, 태안의 지역구민들이 행복하게 웃는 정치를 할 것을 다짐했다.

▲그동안의 활동(업적)에 대해 소개한다면?

첫째, 서산의료원에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 유치 및 심뇌혈관센터 개소 지원을 꾹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서산의료원 6개 진료과에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파견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었으며, 심뇌혈관센터를 개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선진화된 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들이 받으실 수 있게 한 점을 부각했다.

둘째,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간담회와 토론회 주최와 방송 출연, 수산물 소비 장려 캠페인과 수협·급식업체 간 상생 협약식을 주도하며 민주당 발행사능 고집을 저지해 우리 어민들의 삶을 보호해 앞장섰다.

셋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납품단기연동제법) 통과 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쟁을 없도록 하는 법안 대표 발의해 통과 시켰다.

그리고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 대금을 조정하도록 하여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의 상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서산 태안의 핵심 사업은?

첫째, 250만 도민의 숙원 사업이고 18만 서산 시민들의 염원 사업인 서산공항 2028년 완공 목표의 차질 없는 진행에 가장 적임자이라고 자부 하며 특히 서산·태안 철도망, 태안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물류 · 교통개선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산 · 태안 지역주민들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 및 서울대 소아과 전문의 서산의료원 추가파견을 이끌어 낸 것도 중요한 정책 중 하나라고 했다.



둘째, UAM-AAV(미래항공교통수단) 국내 핵심부품 개발업체의 시제품 성능 및 양산성 평가지원을 통해 비용 절감 및 시간 단축 등 산업혁신 및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우리 지역이 UAM-AAV 산업의 중심지가 되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정책이며 자신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성일종 국회의원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주요 중앙언론들에서 과도한 지역 행기기라고 비판받아도 끝까지 예산을 가져오는 추진력과 지역 주민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올해 5,000억원이 넘는 국비를 지역에 가져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주요 중앙언론에서 과도하게 지역구를 쟁기는 관광지로 활성화 및 지역 주민 교통 불편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일한 국회의원에게 주는 훈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서산시와 태안군에 확보한 국비는 역대 최고 액인 약 5,441억원으로, 역대 최초로 국비 5천억 시대가 개막을 자세히 설명들입니다면, 서산시의 내년도 국비 3,450억원(서산시 예산서 기준)을 확보하게 됐다. 올해 국비 3,105억원을 확보했던 것에 비해 무려 약 11%정도 증가된 규모라고 했다.

태안군은 국비 1,991억원(태안군 예산서 기준)을 확보하게 되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게 되었으며, 올해 국비 1,871억원을 확보했던 것에 비해 6.4%의 예산을 증가시켰다며 서산시, 태안군 합계로 보면 내년 총 5,441억원으로 올해 4,976억원에 비해 무려 약 9.3% 증가 시킨 점을 강조 했다.

▲서산지역, 태안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서산공항 사업과 천주교 성지인 해미읍성을 연계해, 서산공항 국제노선 유치와 해미읍성의 국제 성지화를 이루어 서산을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국제도시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을 구상하는 머릿속에 담고 있다.

또한 고남·창기 도로 1공구 조기 건설을 통해 2026 원예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태안군 브랜드 이미지 재고와 관광자원 홍보, 이후 관광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인구 유입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군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여소야대의 국회로 가장 힘들었던 상황은?

어부래도 야당의 의회 폭력을 끊고 싶습니다. 야당은 지난 1년 반 동안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의석수를 이용해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화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나열해도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이다.

이렇게 야당은 다수의석을 이용해 사실상의 대선 불복을 하며 대통령과 여당이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임기 첫해를 재의 요구권과 재의결 후 폐기만으로 기득 차게 만들고 정부와 국회가 정상적으로 국정을 돌볼 수 없게 만들었다.

또한, 지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체포동의 안을 부결시키고 최근에는 김건희 영부인 특검을 통과시켜 민생과 전혀 관련 없는 부분에 힘을 쏟으며 국회를 불필요한 갈등의 장으로 밀어 넣기도 했다.

저처럼 국회는 국정과 민생을 위해 항상 낮은 자세로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이런 반성과 염치없는 행동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손꼽았다.

▲끝으로 유권자들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지역의 발전과 국가의 혁신을 위해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열렬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 오늘의 성일종을 있게 됐다.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선거도 중요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 지역 국회의원의 의무도 절대 소홀히 하지 않겠다.

2024년 4월 치러지는 총선은 아주 중요하다며 서산 · 태안 선거구민들의 을 버른 선택만이 위기에 대한 민국을 구할 수 있다. 서산 · 태안의 진정한 일꾼이 누구인지 동료 시민들의 선택 아주 중요하다고 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산 시민과 태안 군민 여러분의 비서실장 성일종은 지역을 위해 온신의 힘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갑진년 새해에는 행복하고 편안하시길 여러분의 비서실장 성일종이 서면으로 인사드림을 양해 주기길 당부했다.

서산 =김정한기자

●정정●

1월 소통마당



박희조 동구청
장= 5일 오전
9시 구청 대회
의실에서 개
최되는 1월 소
통마당에 참
석.

중구평생교육협의회 회의



이동한 부구청
장(중구청 장
권한대행)= 5
일 오후 2시
중구청 중회
의실에서 열
리는 '중구 평생교육협의회 회
의' 참석.

구 확대간부회의



서철모 서구청
장= 5일 오후
4시 30분 서구
청 대회의실에
서 열리는 구
확대간부회의
에 참석.

오정동화재 피해 성금 기탁식



최충규 대덕구
청장= 5일 오
후 3시 구청
구민의 사랑
방에서 열리
는 오정동 화
재 피해 성금 기탁식 참석.

제품	제조사	용량	단위	정가
화장품 제작자	화장품 제작자	4000ml	병	
화장품 제작자	화장품 제작자	100ml	병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전액 지원**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올해 1월부터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신분증형) 발급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신분증형)는 기존 장애인복지카드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카드로 발급 신청 시 발급수수료 4,000원이 발생해 같은 기능에 수수료가 없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신용, 직불카드와) 발급자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이에 유성구는 관내 등록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대상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신청인의 발급 수수료 납부 절차를 생략시켜 행정 절차 또한 간소화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대상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오는 15일부터 2024년 상반기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市,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1억 2,270만 원

당초 목표액 1억 원 대비 122% 초과 달성

대전시는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1억 2,270만 원을 달성했다.

기부 총액은 1,484건에 1억 2,270만 원으로 목표액인 1억 원 대비 122% 초과 달성한 결과다.

기금 모금액 별로 보면 1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는 6건으로 이 가운데 500만 원 기부자는 2명이며,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10만 원 기부가 982건으로 전체 기부의

80% 이상이며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들의 기부가 대다수였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337건(25%), 서울특별시 341건(23%), 충청남도 72건(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전에 애정이 있는 출향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로 해석된다.

기부자들이 선호한 담례품으로는 성심당 마늘파운드, 성경김,

우명동 참기름세트, 옥토진미쌀 등으로 전체 담례품의 60%를 차지했다.

김영진 소통정책과장은 "대전 시에 따뜻한 마음을 보내준 기부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소중한 기부금이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

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를 담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과 전국 모든 농협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김태선 기자

**주민들이 뽑은 '2023년 동구야 #참잘했어요' 홍보 실시**

동구, 구청 1층에 홍보 게시판 설치···2023년 한 해 이뤄낸 소중한 변화와 성과 공유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외부인 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구청 1층에 구민들이 직접 뽑은 2023년 동구를 빛낸 10대 뉴스 '2023년 동구 야 #참잘했어요' 홍보 게시판을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주민들이 직접 뽑으며 많

은 관심을 보내준 소중한 성과인 만큼 더 많은 주민들과 공유하고자 홍보 게시판을 설치했으며, 온라인 등 다양한 홍보 공간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주민들께

서 인정해 주신 작년 한 해 이뤄낸 동구의 변화와 성과를 더 널리 알리고자 홍보 게시판을 설치하게 됐다"며 "올해도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민들로부터 더 많은 '#참 잘했어요'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3년 동구야 #참잘했어요' 중 구민들로부터 기장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은 최고의 성과는 '15만 명 방문, 66억 원 경제효과, 대전 동구동락 축제'이며, '도심융합특구법 제정, 역세권 대개조 신호탄', '안심귀가 보안관 성공적 시행',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내년 착공 등이 뒤를 이었다.

2024년 새해 첫 세일을 맞은 대전점은 브랜드별 할인 행사와 다양한 상품 행사를 고객 맞이해 진행한다.

남성·여성 등 패션 상품군 브랜드 할인부터 주방·홈페션 등 리빙 상품군 할인까지 전 상품군에 걸쳐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여성·남성·아동 등 패션 상품군에서 일부 브랜드 제외) 품목별 10~3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쉬즈미스, SI, 리스트 등 여성 패션 브랜드가 30%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리버클래시, 에디션, 맨잇슈트 등의 남성 패션 브랜드도 역시 품목별로 3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 가능하다. 또한 반스, 아디다스골프, 언더아머 등의 레이스포츠 브랜드도 품목별로 10~30% 할인 혜택을 만나볼 수 있다.

리빙상품군 브랜드인 아티스 티나, AMT는 50% 세일에 돌입

스페셜 이벤트·신년 첫 세일 진행**갤러리아타임월드**

갤러리아타임월드가 2024년 갑진년 맞이 스페셜 이벤트와 신년 첫 세일, 종별 다채로운 행사로 고객을 맞이한다.

먼저, 5월부터 2월8일까지 진행하는 6천만원 상당의 '2024년 2024년 G캐시' 스페셜 이벤트가 갤러리아 앱에서 진행된다. 2만 4천원 이상의 구매 영수증에 기재된 행운 번호로 갤러리아 앱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응모(1인 1회 참여 한정)할 수 있으며, 기간 중 3번(1/15, 1/29, 2/13) 걸쳐 총 3명의 2024년 G캐시 갤러리아 모바일 적립금 당첨자에게 제공한다.

14일까지 폴로, 빈폴, 라코스테, 헤리스, 타미힐피거 등 트래디셔널 상품군에서 갤러리아 카드, 멤버십 카드로 구매 시 최대 5% G캐시 적립 또는 30만원 이상 구매 시 1만 5천원 G캐시 적립 혜택이 주어진다. SPA 브랜드 COS와 자리에서도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하 2층 비노494에서는 비노엘 유럽 가정비 와인 제안 팝업 스토어가 열리고, 미경신 한우(등심·채끝) 당일판매가 대비 30%, 양념 닭갈비 당일판매가 대비 40%, 사인미스켓, 계란, 쌀, 우유, 세제, 휴지 등 베스트 상품을 할인 판매 한다.

승병배 기자

2024년 신년 첫 세일 진행**롯데백화점 대전점**

롯데백화점 대전점이 오는 21 일까지 2024년 첫 정기세일을 진행한다.

갑진년 '용의 해' 새해를 맞은 첫 세일의 비주얼 테마는 '청룡'과 '비상'이다. 청룡의 좋은 기운을 받아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비상하게 원활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명 그래픽 아티스트 '체벌록' 작가와 손잡고 올해도 더욱 힘차게 출발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청룡과 비상을 테마로 디자인했다.

2024년 새해 첫 세일을 맞은 대전점은 브랜드별 할인 행사와 다양한 상품 행사를 고객 맞이해 나선다.

남성·여성 등 패션 상품군 브랜드 할인부터 주방·홈페션 등 리빙 상품군 할인까지 전 상품군에 걸쳐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여성·남성·아동 등 패션 상품군에서 일부 브랜드 제외) 품목별 10~3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쉬즈미스, SI, 리스트 등 여성 패션 브랜드가 30%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리버클래시, 에디션, 맨잇슈트 등의 남성 패션 브랜드도 역시 품목별로 3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 가능하다. 또한 반스, 아디다스골프, 언더아머 등의 레이스포츠 브랜드도 품목별로 10~30% 할인 혜택을 만나볼 수 있다.

리빙상품군 브랜드인 아티스 티나, AMT는 50% 세일에 돌입

대전공장 인근 아파트단지내 한국타이어 '키즈카페' 오픈

한국타이어 앤테크놀로지(대표이사 이수일, 이하 한국타이어)

는 대전시 대덕구 대전공장 인근의 아파트 단지 내에 '키즈카페'를 오픈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아파트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 아파트단지 커뮤니티센터 1층에 150평 규모의 키즈카페 조성을 완료했다.

이 곳에는 대형 미끄럼틀 등의 놀이 기구를 비롯해 영상기기, 테이블, 안마 의자 등이 마련되어 주민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준길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장은 "공장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번 키즈카페 문을 열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키즈가 반영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승병배 기자

두고 대전 또는 대전과 연결한 세종·충남·충북에서 벼를 실경작하는 농업인으로, 신청서와 벼 재배 확인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오는 8일부터 2월 16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대덕구에 주소를 썩, 2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구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보증 한도 소진 시 까지 대전 소재 하나은행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구 모 청장은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의 위축된 소비 심리가 겹쳐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날로 늘어가는 상황에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베풀길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서구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대덕구, '농가 부담 완화' 벼 영농자재 지원 나선다

오는 8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영농자재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2024년 벼 영농자재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24억 원의 보증 규모로 진행된다. 업체당 최대 3천 만 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 상환이며, 대출금의 2.2%(2년분)에 대 한 신용보증 수수료 전액과 연 3%

●정정●

경제계 신년 교례회



김태 흠 충남
도지사= 5일
오전 11시 충
남부상공회
의소에서 열
리는 2024년
도 경제계 신년 교례회에 참석.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



최재구 예산군
수= 5일 오후
2시 대회의실
에서 열리는
2024년도 주
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회에 참석.

주요사업장 3개소 현장 방문



이용록 홍성군
수= 5일 오후
3시 주요 사업
장 3개소 현장
방문.

세종시 지역 기업 원스톱 지원

세종기업민원해결센터 개소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지역 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세종기업민원해결센터'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시는 4일 시청 1층에서 최민호 세종시장, 이수연 세종시의회 의장, 성남영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우식 세종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기업·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기업민원해결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시청 1층 도비에 문을 연 세종기업 민원해결센터는 원활한 기업경영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시와 지역 기업 간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업무는 ▲기업 애로사항 접수·상담·지원 사항 안내 ▲기업애로 현장 방문 ▲법률·세무·노무 등 전문 분야 컨설팅) 연계·지원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규제 개선건의 등이다. 특히 시장 직속으로 운영되며 기업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의미도 담았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항후 센터 운영과 지역 경제 발전 기여를 위한 목적으로 시와 13개 기업지원기관과의 업무 협약이 진행됐다.

기업지원기관은 ▲대전·세종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전세종총재단지원단 ▲한국부여 보험공사 대전세종총남지역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세종지역본부 등으로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기업 애로사항 등의 빠른 해소를 위해 시와 협력하게 된다.

시는 산발적으로 분산돼 있던 기업 민원 창구를 센터로 일원화하면서 기업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해 상담,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기업 애로사항 해소 대응력과 전문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기업민원해결센터는 우리 시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며 "기업민원접수 온라인 플랫폼을 개편하고 법률, 회계 등 전문기를 센터로 파견하는 등 지원기관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기업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지역경제가 성장하고 혁신하는데 방해가 되는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세종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 애로사항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044-300-4825), 전자우편(onestopsejong@naver.com), 시 누리집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김태선 기자

농업의 미래 '스마트팜' 발전 전략 모색

충남도, 전문가포럼 개최... "스마트농업 보급·확산 최선"

충남도가 청년농 육성 및 농업 성장 기반 마련 등 민선 8기 스마트농업 발전 전략 모색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4일 충남도립대 예지관에서 '민선 8기 스마트농업 발전 전략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박정주도 기획조정실장과 김영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도·시군 관계 공무원, 관련 기관·단체·기업 관계자, 청년농업인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포럼은 기조강연, 주제발표,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스마트농업의 미래 비전과 현장 사례 등을 공유했으며, 기후변화·고령화 등 농업이 미주한 위기에 대한 대비책

과 대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강호진 주한네델란드대사관 농무관이 '네델란드 사례를 통해 본 한국농업 발전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김 교수는 스마트농업을 중심으로 그린바이오클러스터와 연계한 융복합 산업을 강조하고 충남형 전략으로 △그린바이오 특양용식 물광장 시스템 개발 △농업 전 분야에 탄소 저감 기술 적용 △폐열 활용 농업 모델 적용 기술 개발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 농업은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데이터 활용한 스마트팜 비즈니스 모형 개발과 데이터 활용 능력 강화로 농가 역량을 향상시켜 국내 농업이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농업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류 지장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스마트팜 사업 추진 현황을 소개하면서 스마트팜 온실의 설계, 시공 과정과 방법 등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했다.

박정주 실장은 "이번 포럼은 네델란드 등 스마트농업 선진 사례와 국내 스마트농업의 정책을 비교하고 접점을 찾으려 했지만, 실제 활용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했다"라며 "이번에 도출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정책의 방향성을 확립하고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이 보급·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세종시, 지방·공공외교 우수사례 선정 2관왕 달성

숨겨진 글자 전시회 한·불기리아고유문화 보호 등 성과 인정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추진 한 숨겨진 글자 전시회가 2023년 공공외교 지방자치단체 협업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외교부는 지난 2019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공공외교 우수사례를 선정·발표하고 있다.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의 1건, 협업 2건이 선정됐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외교 우수사례를 선정·발표하고 있다.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의 1건, 협업 2건이 선정됐다."라며 "올해도 해외 공부원 연수과정 유치 사업 등 신규 국제화 시책을 추진하면서 세계화 소통하는 국제교류 중심자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고유문화인 한글과 키릴문자(러시아어)의 공통성을 바탕으로 주한불기리아대사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협업해 세종시립도서관에서 45일간 '숨겨진 글자 전시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 행사를 한글문화수

도로서 한글의 우수성을 전파한 동시에 불기리아 키릴문자를 통한 상호 문화교류와 양국 간 우호관계 강화에 기여한 공

공외교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이번 공공외교 우수사

김태선 기자

김정환 기자

홍성군, 2023년 대한민국 지역경제 대상 '트리플크라운'

3관왕은 전국 세 곳에 불과 일자리 경제수도 면모 제대로 과시

홍성군이 2023년 대한민국 지역 경제 대상에서 3관왕을 차지하는 기업을 토했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3년 최초로 시행된 대한민국 지역경제 대상은 한국 지역경제학회와 한국지역 경제연구원에서 공동 주관으로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지방물가 등 9개 지표를 부문평가와 종합평가로 세분화하여 통계청, 관세청 등에서 공시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산정평가해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각 부문별로 약 5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일자리 창

출부문은 일자리의 양과 질을 평가 지표로 구성해 평가하여 72.1% 이르는 역대 최고의 고용률과 계층별 전방위적 고용률 상승, 상용 근로자 수 증가 등 홍성군 특유의 선순환 일자리 생태계가 선정위에 제대로 어필됐다는 분석이다. 군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 지역 일자리 공시제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어 격호재를 맞았다.

또한 투자 유치부문 대상 수상을 통해 내포신도시 신산업 유치와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신

산업 경제 체질 전환과 관내 내수 기업의 수출액 증가 등 경제수도 훌륭, 기업 특별시를 지향하는 군의 면모가 여실히 증명됐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민선 8기 취임과 함께 약속드린 경제수도 도시 홍성 실현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며 "자강불식의 각오로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를 위해 능동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을 실행하여 군민의 100년 머거리 확보와 지역발전 극대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정환 기자



예산군, 환경부 '예당저수지 친환경호수 조성사업' 최종 선정

예당호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 목표

예산군이 환경부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에 선정돼 해당 저수지 수질 개선 사업을 위한 국비 50억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은 예당 저수지 일대의 수생태계 복원과 수질 개선을

위한 것이며, 군은 생태 관광형 습지 공원 조성, 다목적 생태수로 조성, 생태 숲 체험장 탐방로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총 국비와 지방비 각 50억 원씩 총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군은 △습지 조성 을 통한 오염물질 저감 △수변 경관 개선 △친환경적인 서식처 제공 등을 추진해 예당저수지 수질을 개선하고 시민 참여형 생태 문화 체험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예당 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적인 생태 관광 명소를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 박제화 기자

갑진년 새해 충남 발전 위해 한마음 한 뜻

도청·교육청·경찰청 직장선교회 연합신년 기도회

충남도청 기독교직장선교회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4일 오전 7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교육청·도 경찰청 기독교직장선교회와 함께 국가와 충남의 발전을 위한 신년 조찬 기도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독회는 송준영 동대갑리교회 목사가 대표 기도를, 김성선 당진

조길연 도의장, 김지철 도교육감, 유재성 도경찰청장, 김종우 충남 기독교총연합회장, 선교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기도회는 1부 예배, 2부 신년 인사, 3부 조찬 간담 순으로 진행됐다.

기독회는 송준영 동대갑리교회 목사가 대표 기도를, 김성선 당진

주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진 도청 기독교직장선교회장은 "충남도청 복음화를 위해 1988년 12월 10일 직장선교회를 발족한 후 올해도 신년 조찬기도회로 3개 기관이 함께해 열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수시로 연합해 국가와 도청·발전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홍성군·우리동네의원 업무협약 체결

홍성군이 보건복지부 주관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가장 내에서 의료 간호, 돌봄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통의 차와 거동 불편 소외계층이 받을 수 있는 의료혜택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태선 기자

우리/동/네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빅데이터·인공지능 더한다



수신면 주민자치회, 마을의 안녕과 발전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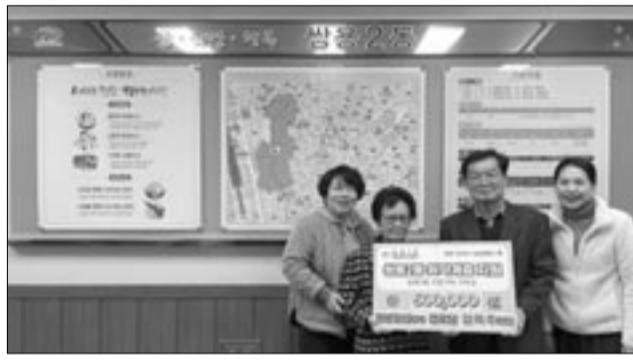
갑진년 해맞이 떡국나눔 행사

천안시 수신면 주민자치회(회장 안인기는 지난 1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수신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맞이 떡국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마을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민자치회는 마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떡국을 제공하며 훈훈한 너دية와 소망을 주고 받았다.

안인기 회장은 "갑진년 새해 희망찬 한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을 주민들과 함께 떡국을 먹었다"며 "올 한 해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김성환기자



흉터령콜, 복지사각지대 쌍용2동 주민들 위해

기부금 전달로 이웃사랑 실천

천안시 쌍용2동(동장 김광섭)은 지난 2일 흉터령콜(대표 인용환)이 이웃사랑을 위한 기부금 30만 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된 기부금은 천안시복지재단에 지정기탁되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쌍용2동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흉터령콜은 쌍용2동에 위치한 배달 대행업체로 매년 두 차례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인용환 대표는 "매번 직원들과 함께 기부금을 모아 전달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기부금인 만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광섭 쌍용2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탁해 주신 흉터령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음을 담은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불당1동 행복키움지원단, 2024년 첫 정기회의 개최
불당1동 행복키움지원단은 4일 불당1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복키움지원단은 신규단원을 위촉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 등을 논의했다.



충남동부보훈자청, 2024년 부정청탁·감질근절 실천 결의
충남동부보훈자청(지정장이용기)은 4일 갑진년 새해를 맞아 지정장 3층 유관순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감질근절 실천 결의 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결의 대회에서는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직원이 대표로 서약서를 낭독하고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금지 및 감질근절 실천 서약서' 작성을 통해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질 예방을 위해 상호 존중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할 것을 다짐했다.

천안시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천안시가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을 활용한 '2040 천안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시는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박상돈 시장을 비롯해 도시계획 관련 부서장, 전문가와 용역사가 참석한 가운데 '2040년 천안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기준 방식과는 다르게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도시계획 연구개발' 기술을 시범 적용한다.

'인공지능(AI) 도시계획 연구개발(R&D)'은 이동통신, 신용카드 매출액, 교통량, 유동 인구, 위성영상 등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활권 설정, 토지이용, 기반시설 수요 예측 등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최적의 도시계획 수립 지원기술을 개발하는 국가사업이다.

증 대상 지자체 선정 공모에서 전국 시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돼, 주관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40년 천안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기준 방식과는 다르게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도시계획 연구개발' 기술을 시범 적용한다.

'인공지능(AI) 도시계획 연구개발(R&D)'은 이동통신, 신용카드 매출액, 교통량, 유동 인구, 위성영상 등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활권 설정, 토지이용, 기반시설 수요 예측 등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최적의 도시계획 수립 지원기술을 개발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를 통해 계속 변화하는 빅데이터를 분석해 산업단지, 대학 등에서 유발하는 통근·통학 등 생활인구를 추정하고, 다양한 대안에 따른 도시 공간 변화 예측 기술을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적용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기존의 종량·경험 중심 계획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 미래상과 도시공간구조 설정, 시민계획단 운영 방향 등을 설명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시공업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2035년 천안 공업지역 기본계획'도 함께 수립한다.

천안시는 앞으로 활발히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 등 급변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주변 도시와의 연계 수요를 고려한 광역 기반시설 계획 반영 등 지역 거점도시에 걸맞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상돈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 인구·주거 지표를 비롯한 인공지능(AI) 미래예측 기법 적용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2040년 천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사회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정

읍면동 방문



박상돈 천안시장
= 5일 오후 1시30분
원성1동, 오후 3시30분 신인동에서
각각 '2024 읍면동 방문'에 나섰.

천안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으로 10% 감면

천안시는 이달 31일까지 '2024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환경오염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는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매년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2회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일시 신청·납부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차 소유자이며 31일까지 천안시청 환경정책과 전화 041-521-5404, 5418로 신청하거나, 위택스 누리집 (www.wetax.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순에 10% 할인된 연납고지서를 받게 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온행 CD/ATM 기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 내에 미납할 경우 연납 고지가 자동 취소되고, 감면 혜택 없이 3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김수진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통해 납부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도 제고할 수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도시공사, 2023년 정보

공개 종합평가 '우수'

천안도시공사(사장 한동희)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및 제도 운영 등 4개 분야 12개 지표를 평가한다.

도시공사는 이번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비공개 세부기준 적합성, 정보공개 청구처리 및 고객 수요분석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등급을 받았다.

특히, 생산 문서 목록 공개 비율 100%를 달성하며 동일 유형 기관 대비 투명한 공개율을 보였다. 또 다양한 고객수요 분석과 분석 결과를 누리집에 반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동희 사장은 "이번 종합평가 결과는 시민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여겨진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정보 수요를 피아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에서 장기간(4~10개월) 이수하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도(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IPP)'와 더불어 효율적인 진로·취업지도를 위해 학생정보 및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학생종합경력개발시스템(Student Total Evolution Management System, STEMS)'을 구축, 재학생들에게 ▲직종, 직무 등 취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학생 주도의 자기분석, 진로설계 및 경력을 관리할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성공적인 진로 및 취업 역량 개발을 위해 대학에서 제시한 1~4학년 단계별 권장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이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진로·취업전담 교직원은 시스템을 통해 재학생의 진로·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획득하고, 학생 진로목표·이력현황·관련 졸업생 진출 현황 등을 상시 열람 분석하여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활용하고 있다.

진로 목표설정이 되어있지 않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별도 개별 상담 등을 통해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통해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정복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계약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력입니다.

광고문의

(042)538-3030



세종시 두 다리서 40여대 추돌…14명 다쳐…블랙아이스때문 세종시 금빛노을교와 아름찬교에서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로 차량 40여대가 추돌해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오전 5시 25분께 세종시 세종동 금빛노을교에서 차량 30여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5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약 1시간 뒤인 오전 6시 27분에는 금빛노을교 인근에 있는 아름찬교에서 8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9명이 다쳤다. 두 사고로 모두 38대의 차량이 파손됐으나, 부상자 14명은 모두 경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세종시에는 안개가 짙게 끼었었는데, 전날 내린 비가 도로에 얼어붙으면서 블랙아이스(도로결빙 현상)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는 사고가 발생한 두 곳과 결빙 취약구간에 제설차 47대 등을 투입해 긴급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다.

아산소방서, 화재안전관리 강화 당부

겨울철 화재추이와 통계 분석결과 바탕

아산소방서(서장 김오식)는 겨울철(11월 ~ 2월) 화재 추이와 통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 발생이 많은 공장·창고·주택·차량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18년 11월 ~ 2023년 2월) 아산소방서 관할 겨울철 화재는 총 386건으로 부주의 153건(39.6%), 전기적요인 108건(30%), 기계적 요인 51건(13.2%), 그 외(19.1%)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 장소별로는 비주거시설 화재가 173건으로 전체 화재의 44.8%를 차지하며 주로 공장 및 창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그 다음으로 주거시설 화재가 114건(29.5%), 차량 화재가 15건(15%)을 차지했다.

연간 전체 화재 중 겨울철 화재 발생이 집중됨에 따라 아산소방서에서는 해마다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해 전 소방공무원이 화재·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오식 서장은 “관할 특성상 겨울철 공장·창고화재가 특성화된 화재를 예방하는 요인이 됨에 따라 자율안전점검과 전열기구 안전수칙 준수, 소방시설 상시 정보·보완 등 화재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아산=리昂주기자

반려동물로 인한 전기화재 주의

청양소방서, 반려동물 키우는 1인 가구증가함 따라

청양소방서(서장 진용만)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도 늘어나고 있다며 화재예방에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는 총 387건이 발생했으며, 14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는 동물들이 전기레인지·인덕션의 전원을 놀려서 주변의 종이, 냅비 등에 착화되어 발생하거나 전선·콘센트를 동물들이 물어서 핫선·단락이 일어나고 텔과 배설물이 유입되어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른 화재 예방법은 ▲외출 시 전기코드 뽑기 ▲전기레인지 전원 버튼 덮개로 덮기 ▲전기레인지 전원 안전장치 설치 등을 홍보하고 있다.

진용만 청양소방서장은 “1인 가구가 늘어나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도 증가세이다.”며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양=정상범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대전공장, 희망2024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2억 1천만원 기탁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대표이사 이수일)이 한국타이어(4일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대전공장에서 유재욱 대전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이준길 대전공장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2024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2억 1천만원 전달식을 가졌다.

“저비용 항공사 요금, 소비자 기대보다 비싸”

한국소비자원, 4개 저비용 항공사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요금이 소비자들이 기대치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에어부산,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4개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평가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 이들 항공사의 국내선이나 국제선을 탑승해 본 경험에 있는 만 20세 이상 소비자 1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0%는 조사 대상 중 9.1%는 저비용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유형별

답했다.

소비자들은 저비용 항공사의 요금이 대형 항공사와 비교해 평균 38.1%는 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제선과 국내선 모두 50% 이상 저렴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30~40% 저렴해야 한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다만 저비용 항공사 요금은 국내선 평균 기준으로는 16%, 주말은 9% 가량 각각 저렴해 소비자들의 기대치와 차이가 크게 났다.

조사 대상 중 9.1%는 저비용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유형별

로는 운송 지연(52.7%)과 위탁수화물 분실·파손(27.4%)이 많았다.

종합 만족도는 제주항공(3.59점/5점 만점)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에어부산(3.57점), 진에어(3.55점), 티웨이항공(3.52점) 등 항공사도 모두 오차범위 내 평가를 받았다.

부문별 만족도는 서비스 품질이 3.64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서비스 상품(3.52점), 서비스 체험(3.32점) 등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품질 부문에서는 전문성(3.81점)과 대응성(3.78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항공기 디자인이

뜨거워진 한반도…

작년 가장 더웠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한반도가 갈수록 뜨거워지면서 2023년은 역대 ‘기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

기상청 기상자료방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전국 평균 기온은 13.7도로 집계됐다. 전국에 기상관측망이 확충돼 기상관측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 2016년(13.4도)보다 0.3도나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저비용 항공사 4개 사와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인프라 등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또 운송 지연·저감·안내 강화 등 소비자 불만 감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도 요청했다.

지난해 1~11월 전국 평균기온이 평년(1991~2020년까지 30년 평균)기온보다 낮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특히 3·4·5·6·8·9월은 평균기온을 기준으로 상위 10위 안에 포함돼 있었다. 3월과 9월은 평균기온이 역대 가장 높은 달로 기록되기도 했다. 게다가 초겨울이었던 지난달 8월에는 일부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20도를 넘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전국 곳곳에서는 역대 12월 최고기온 기록이 경신했다.



충남도지자경찰위원회, 공직 출발

신임 경찰관 청렴 인식 제고

충청남도지자경찰위원회는 4일 도경찰청 교육센터에서 교육 중인 신임 경찰공무원 98명에게 청렴·인권 관련 도서를 전달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첫 출발을 응원했다.

제공한 도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추천 도서 가운데 청렴·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고민해 볼 수 있는 도서로 선정했으며, 인문서 위주로 선정해 관심도 제고를 위해 소설작품도 포함했다.

이시준 도지자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청렴·인권 의식은 경찰이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라며 “청렴·인권 도서를 통해 청렴·인권 가치를 조금이나마 아로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앞으로 신뢰받는 자랑스러운 충남 경찰공무원으로서 도민의 든든한 지팡이가 돼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도서 전달 행사는 지난해 상반기 신임 경찰공무원 대상 행사 이후 두 번째로, 신규 임용 경찰공무원의 공직사회 적응을 돋우고 특히, 공직에 첫 출발하는 신임 경찰관으로서의 바른 가치관



평택해양경찰서, 대형선박의 입·출항 지원하는 예인선

해양환경관리 모범 선박 ‘백두호’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4일 평택항 내 대형선박의 입·출항을 지원하는 예인선 ‘백두호’를 해양환경관리 모범 선박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 모범 선박은 50톤 이상 유조선 및 200톤 이상 대한민국 일반선박을 대상으로 선정되며,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철저히 관리하고 폐유·폐기물의 적법 처리 등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선박에게 인

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예인선인 ‘백두호’는 ▲해양환경 정보전을 위한 선주 관십도 ▲선원들의 해양오염방지 의식도 등 총 11개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모범 선박으로 선정되었다.

모범 선박으로 선정되면 3년간 출입검사 면제 및 해양환경관리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시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당진=최근수기자

62개 시·군·구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 시범 실시

83개 의료기관, 2차 시범사업 선정…서비스 대상에 장기요양 5등급·치매 등 포함

새해 1월부터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서비스 시범사업이 서울 강북구 등 62개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62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해 새해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입장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 등을 연계해 준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차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실시했으며, 이용자들의 의료이용변화 분석과 참여여부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이용변화 분석에서는 대리처방률 감소,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대리처방률은 32.4%에서 26.5%로 18% 감소했고 응급실 방문 횟수 0.4회에서 0.2회 줄었으며, 지난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평가연구원 조사대상 수급자·주수발자 중

94%, 의사·간호사 중 76%, 사회복지사 중 73%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1차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2차 시범사업은 참여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이용 가능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했다.

우선, 1차 시범사업은 28개 시·군·구에서 28곳을 운영했으나, 2차 때는 2027년 전체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계획하에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시범사업 대상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을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가능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한 공동에서 73개 시·군·구, 110개 의료기관이 신청했으며,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해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해 수급자 입장에 방문해 포괄평가를 실시하고 환자별 케어플랜을 수립한다.

수급자는 자신의 건강상태, 치료에 대한 욕구, 주거환경 등에 따라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주기적 상담을 통해 기타 지역사회 및 장기요양 서비스와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수도권 대학 정원 25% '무전공 입학' 검토한다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개편안 시안

교육부, 수도권 대학 정원 25% '무전공 입학' 검토한다.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에서 내년부터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무(無)전공'으로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고2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4학년도에는 정원 4분의 1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대학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학혁신지원사업 개편안 시안(정책연구진안)'을 대학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교육부가 대학의 혁신 의지 등을 평가해 예산을 지원한다.

이번 시안에는 일정 기준 이상 무전공 체제로 입학생을 받는 수도권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담겼다.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과 간 벽을 허물어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대학은 총 두 가지 방식으로 무전공 입학제를 운영할 수 있다. 하나는 자유전공 학부 등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후 대학 내 모든 전공(보건의료, 사범계열 등 제외)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유형1)이다. 다른 하나는 계열 또는 단과대로 신입생을 모집한 후 단위 내 모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학과 정원의 150% 범위에서 전공을 선택하도록 모집하는 방식(유형2)이다.

유형1은 2025학년도까지 정원의 5% 이상, 2026학년도까지 정원의 10%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두 방식을 혼용하면 2025학년도까지 정원의 20% 이상, 2026학년도까지 정원의 25%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한다.

시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8852억원 중 절반(4426억 원)을 인센티브로 배분할 계획이다. 대학은 무전공제 규모와 관리 체계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다.

시인이 확정되면 수도권 대학은 당장 내년부터 무전공 입학제를 시행한다. 대학은 내년도 입시에서 구조개혁 및 학과 개편을 하려면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에 오는 4월까지 대학입학전형 수정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칙은 4월이지만 추가 입시 조정이 필요하다면 대교협과 협의해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무전공 입학 학생들이 전공 선택 시 인기 학과로 쏠리는 현상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과 선호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문사회계열 등 비인기 학과가 위축될 수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무전공 입학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대학이 대내적인 개편을 하지 못한다면 특정 전공에 학생이 몰려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교수는 있지만 학생이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복 기자

충남교육청, 3개년 고교 개별 교육과정 설계 실습에 겸증시스템 도입

고교학점제 종합지원 누리집 '온마당' 구축

개하여 진로·적성에 따라 개별 교육과정을 설계·관리하고 진로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돋는 '교육과정 부문' ▲선택과목 소개 및 영상자료, 계열별 학과 안내, 과목설계자료를 제공하여 개별 교육과정 설계를 돋는 '자료마당 부문'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공동 개설·운영할 수 있는 수강신청 시스템으로 공동교과과정 수강 경로 5개(학교연합, 온라인, 지역연계, 대학연계, 마을연계)를 제시하여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소인수과목, 심화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첨가학력 공동교과과정 부문' ▲학장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과목 확대에 필요한 강시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사인력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남교육청은 '온마당' 구축을 통해 고등학교 개별 교육과정 설계 실습에 겸증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생 개별 교육과정 설계역량을 향상시키고 주도적 인재양성의 기반을 마련한다.

'온마당'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대비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및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현장 밀착형 지원 플랫폼으로서 충남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김정환 기자



서천중 민주적 세계시민 위한 진로의 날 운영 서천중학교(교장 김우진)는 지난 3일 특별설에서 민주적 세계시민을 위한 진로의 날을 운영했다. 이번 진로의 날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세계문화에 대한 친화적 교육과 티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체험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며, 자율성과 창의성 함양,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산고, 학생회 주관…2023학년도 한 학년의 대미를 장식

'예고 뽕빵 오락실' 2023 예덕제 축제



째 날은 박스가왕 경연대회, 반별 장기 경연(최고다! 우리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또 이 프로그램들로 학생 하나 하나, 그리고 모두가 흥겨움과 신명이 어우러진 가운데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확 날려 보내는 시간이었다는 평이다.

또한 이를 내내 진행된 동아리 부스, 학생 회부스, 학부모 부스에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어 눈과 귀, 그리고 입이 즐거운 시간이 되어 교육과 흥미를 함께 해 학생들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멋진 계기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학생과 교사가 기증한 물품으로 자선 바자회도 열어 축제의 친목에 의미를 더했는가 하면, 축제 프로그램 중간 중간에 타학교의 댄스팀과 밴드팀이 조화를 이루는 찬조 춤연으로 지역 사회 문화의 소통과 함께 지역 사회와 학교, 학생 모두가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는 청소년 문화 성장의 장이 되기도 했다.

첫째 날은 반별 저가 코스프레 콘테스트, 예고 성대모사 대회, 예탁 퀴즈쇼, 개인 장기 자랑 등의 프로그램으로, 둘째 날은 박스가왕 경연대회, 반별 장기 경연(최고다! 우리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예산=박제희 기자

대전교육청, 관내 초·중등교사 1등급 1명, 2등급 2명, 3등급 2명 입상

전국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수상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성호)은 교육부에서 주관한 2023년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전국대회에서 대전 관내 초·중등교사가 교육부장관상 1등급 1명, 2등급 2명, 3등급 2명이 입상하는 평가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2023년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는 각 시·도 대회에서 1등급으로 선정된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전체 출품작의 40% 이내를 최종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대전은 전국대회에 총 6편의 작품을 출품하여 이 중 5편(83.3%)이 입상하였다.

올해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의 방향은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성장을 위해 교수·학습 방법, 교육자료 개발·적용뿐만 아니라 디지털 윤리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등 시대에 맞는 학교현장 중

심의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입상작은 대전교육포털 에듀랑과 에듀넷 티클리어에 탑재하여 본 대회를 통해 발굴한 현장 중심의 인성교육실천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 인성교육에 대한 교원의 관심과 실천을 더욱 고취할 계획이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인성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인성교육 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의 우수한 성과는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의 인성 함양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앞으로 인성 친화적 학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온양문화원 '2024 신년 인사회' 개최

박 시장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자' 덕담



박경귀 시장이 지난 3일, 아산타미널웨딩홀에서 열린 온양문화원 주관 '2024 갑진년(甲辰年)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새해맞이 행사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아산시 신년인사회'는 아산시 관계 기관·사회단체장 및 관계자 등이 한데 모여 아산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자리다.

박경귀 시장은 비롯해 정종호 문양문화원장,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 이명수 국회 의원, 이산교육장, 이산경찰서장, 아산소방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박경귀 시장은 "지난 한 해 우리 아산시

는 '아트밸리 아산'으로 거듭났고, 각 분야에서 일취월장 성장했다. 2024년 아산시는 국내 최고 경제도시, 산업도시로 더 크게 도약하고,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핵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다질 것"이라며 "추진 중인 사업이 많고, 신작한 과제들도 많아 각 분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자리에 모인 리더들이 각 분야의 업원과 의지를 모아주신다면, 2024년 아산시는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다. 함께 힘을 모아 시민이 행복한 도시, 시민의 자부심이 되는 도시 아산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공주도서관 '착각' 주제 일반도서·'한국과 세계 전통 문화' 주제 아동도서

2024년 1월 사서 추천 북큐레이션 운영



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당진고등학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뜻깊고 밝은 2024년 갑진년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총 536,700원의 판매수익금을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

이번 기부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선생님들께서 만들어주시는 따뜻한 봉어빵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으며, 판매 수익금이 전액 기부되어 좋은 곳에 쓰인다니 보람 있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는 책을 소개해 도서관 이용자가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돋는 활동이다.

이번 사서 추천 북큐레이션의 주제는 '착각'을 주제로 한 일반도서 14권, 한국과 세계 전통 문화를 주제로 한 아동도서 6권을 전시하고 있다.

윤석용 관장은 "이용자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단서를 주제로 가진 도서 전시를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라며 "이 외에도 그림책 원화 전시와 같이 책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많은 활동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지난해 대전금체원 7명 → 금년 전국 금체원·치유의숲 44명 확대



상 등을 통해 고객의 안전을 지켰다.

이번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직무만족도는 5점 만점에 5점으로 긴장관리와 여가활동 분야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대전 숲체원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부지역본부는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시니어 안전지기' 신규 수요 조사를 시행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소속기관 6곳에 '시니어 산림복지서비스 안전지기' 44명을 확대 배치한다.

이영록 원장은 "시니어 산림복지서비스 안전지기는 어르신의 건강관리와 고객 안전을 함께 총족하는 전망있는 일자리"라며, "초고령화 시대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산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보령 송학초 '환경사랑비자회 수익금 기부' 환경 사랑 실천 송학초등학교(교장 김미정)는 지난 3일 6학년 환경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사랑 책나들이를 실시하였다. 이번 책나들이는 12월 20일에 실시한 환경사랑비자회의 수익금 353,000원을 보령환경단체기관(보령 지역구로운 제로웨이스트)에 기부하고, 보령시립도서관을 방문해 자원 재활용 및 환경 보호와 관련된 책들을 직접 찾아 읽어보고, 도서관 내 북카페에서 용기내 책린지 활동에 참여하는 환경 사랑 실천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초거대 인공지능(AI) 활용 시범 운영

道, 소셜데이터 기반 이슈분석·업무용 서치지피티(SearchGPT) 서비스 구현

충남도는 민간의 초거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충남형 인공지능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을 마치고,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민간의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를 통해 충남형 인공지능 플랫폼 및 서비스를 개발, 시장 단계인 인공지능의 행정 분야 적용 실현 가능성과 효과·효

용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범 운영하는 서비스는 공급기업인 바이브컴퍼니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화 사업 업무용 서치지피티(SearchGPT)'와 '도정 이슈(뉴스) 분석 서비스'이다.

업무용은 충남데이터 포털 올림 등에서 관리하는 통계 데이터를 초거대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이용자가 분야별 키워드만 입력하면 필요한 통계 테이

터를 찾아주고, 간단한 시각화(차트, 그레프까지 지원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슈 분석은 소셜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정에 대한 여론 탐색·언급량 추이, 연관어 분석, 감성분석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도는 시범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민간의 초거대 인공지능(AI) 활용 지원 사업' 정부 공모 신청 및 선정에 행정력

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직원들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마련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 민선8기 공약인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방정부 구현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며 "앞으로 인공지능 학습 분야를 확대해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디지털 지방정부 구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 접수

서산시,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40종 69개소에 16억 원 투입

충남 서산시가 농업 신기술 보급과 농업인들의 영농문제 해소를 위해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의 신청을 1월 8일부터 26일까지 받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총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해 총 40종 사업에 69개 농가, 법인, 농업인 단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은 ▲식량작물 ▲종자산업 ▲경제작물 ▲과수·회화·특작 ▲농업지원 ▲축산 등 6개 분야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 대상지가 서산시에 있는 농업인, 법인, 농업인 단체다.

시는 현지 조사와 영농의욕 및 세기기술 수용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고 농업산학 협동심의회를 거쳐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과 서산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기술보급과(041-660-3931), 농업지원과(041-660-3903), 축산과(041-660-2220)로 문의하면 된다.

식량작물분야는 ▲특수미 생산·가공 단지 조성 시범 ▲벼 직파재배 확대 기술 지원 ▲발자작 품종 지역적응 시범 ▲농작물 병해충 무인항공 방제 기술촉진 사업 등 7개 사업이다.

종자산업분야는 ▲서산 6쪽마늘 우

량종구 생산단지 육성 시범 ▲고품질 씨감자 생산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이다.

경제작물분야는 ▲생강·고추 신기술 실증시범 ▲화분매개 용지털 병통 기술 시범 ▲딸기 노지육묘 기술 시범 ▲쪽파 디자기 양액재배 기술보급 시범 ▲이상고온 대응 시설체조 안정생산 시범 등 8개 사업이다.

과수·회화·특작분야는 ▲특용작물 안정생산 기술시범 ▲과수원 인공수분 드론활용 시범 ▲사과 재배 신기술 다축 과원 보급 시범 ▲아열대과수 경쟁력 강화 기술 시범 등 6개 사업이다.

농업지원분야는 ▲귀농인 소규모 농장 조성 시범 ▲청년농업인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향토문화 익 관광상품화 사업 조성사업 ▲서산생강한과 명품화 포장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이다.

축산분야는 ▲과제류 부산물 한우 사료화 비용절감 기술 시범 ▲탄소 저감형 사양기술 보급 시범 ▲양봉 사양관리 병해충 방제 기술 시범 등 5개 사업이다.

김갑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시범사업을 통한 신기술 및 세소득 작목 보급이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아산시 저출생 극복 인구정책 설문조사 착수

아산시는 저출생 인구 문제에 대한 시민의식을 파악하여 아산시 인구정책 마련 및 근거자료 수집을 위한 '인구정책 설문조사'를 1월 28일까지 18세 이상 아산시민 및 단기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인구정책 설문조사는 아산시가 최근 10년간 인구가 20%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출생아 수는 50% 이상 감소하여 날로 심화되는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인구정책, 저출생 극복·문화 등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1월 예산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실시

예산군, 1인당 30만원 한도 내 구입 가능



예산군은 지역 자금 여과 유출을 막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월 2일부터 예산 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할인 판매 발행 금액은 총 22억 원(지류 10억 원, 모바일 12억 원)으로 할인 행사는 판매 금액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1인당 30만 원 한도 내 구입이 가능하다.

지류 상품권은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휴대폰을 지참해 농협 은행 예산군 지부 외 43개 판매 대행점을 방문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카드, QR) 상품권은 '지역 상품권 칙(chak)' 애플리케이션 내려받아 본인 인증을 거쳐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예산 사랑상품권은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106개소를 제외한 관내 가맹점 306개 기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정책 협동 상품권으로 농업인에게 지금된 농어민 수당은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장을 비롯한 모든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산 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청 경제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할인 행사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부정 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 및 최하 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박재화기자

홍성군 신인환 축산과장 '대한민국 동물방역수의사' 대상 수상

철저한 방역으로 농가 피해 예방한 공로 인정받아 전국 시군구 유일 수상



홍성군은 제3회 대한민국 동물방역수의사 대상 수상자로 홍성군 신인환 축산과장이 선정되어 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한수의사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동물방역수의사 대상은 동물방역 향상에

아산시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아산시는 오는 8일부터 10일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수요자에게 사

하는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다.

모집 대상 사업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털케어서비스, 청년미음건강지원사업, 행복가득백년청춘, 시각장애인암마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성인·장애인을 위한 신체재활서비스 등 8

개 사업이며, 802명을 선별할 예정이다.

이용을 원하는 신청자는 신분증과 서비스별 필수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누리집(www.asan.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공주시 2023 도시계획·도시개발분야 우수기관 표창

도시기본계획 수립·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업무추진 유공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2023년 지역'도시계획 및 도시기

별분야 합동점검에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분야 유공 기관으로 선정됐다.

충남도는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계획, 도시계획, 도시개발 등 3개 분야에 대해 2023년도에 추진한 사항을 점검하고 분야별 추진 실적을 비교해 유공 기관을 표창했다.

공주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의 업무추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 충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김진택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과 전략을 수립해 균형 있는 도시발전과 도시기능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당진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당진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해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4년

액의 2%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 원까지 80가구에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4. 1. 15.)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5년 이내(미성년 2자녀 이상인 경우 7년 이내) 혼인 신고한 부부이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80% 이하(인기준 6,629천 원)이며, 주택 기준은 당진시 소재 주거용 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로 일반·신용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누리집 고시 공고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세도방을공선출하회 '희망2024 나눔캠페인' 500만원 성금 기탁

희망2024 나눔캠페인의 기간을 맞아 지난 3일 세도방을공선출하회(정택준 대표) 외 45명에서 소중한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세도방을공선출하회는 부여군 세도면에서 생산하는 방울토마토를 공동으로 선별·출하하는 단체로 약 45농가로 구성되어 있다.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9 대동빌딩 7층

동정

신년교례회



박경귀 아산시장
=5일 오전 9시 10분 영인농협에서 열리는 '2024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시장님 특강(벼, 영인)', 오전 11시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충남 경제계 신년교례회'에 참석.

북카페 개관식



가세로 태안군수
= 5일 오후 2시 고남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리는 '고남면 야기자기 북카페 개관식'에 참석.

위촉장 전수



김돈곤 청양군수
=5일 오후 1시 30분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주민 배심원단들에게 위촉장을 전수.

청양 표고버섯생산자협회

2024년 추진 사업 논의

청양군 표고버섯 생산자협회 회장 박병환(이하 협회)은 4일 청양읍 라온웨딩홀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추진 사업을 논의했다.

표창장 및 감사패 수여, 축사, 사업 논의 순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김돈곤 청양군수, 차미숙 청양군의회 의장, 협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표고 산업 발전을 위해 애쓴 하현수 비봉면 지역장과 김도영 회원이 각각 군수, 군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 협회는 군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표고 융복합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고품질 생산과 기공, 유통 기반을 구축했다.

협회는 이를 바탕으로 표고 산업을 성장시키고 청양 표고의 위상과 인지도를 높이면서 농가 소득 증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군은 지난해 시설 난방비 지원 등 각종 사업 추진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했고 특히, 지난해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표고 재배시설 침수, 파손 등 어려운 여건에 즉각적으로 대응, 현실적인 복구와 축산농가들의 일상 회복을 도왔다.

협회는 이날 신속 복구와 현실적 보상을 진두지휘한 김돈곤 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군은 올해 기후변화를 비롯한 각종 재해에 따른 표고 품질 저하와 생산량 감소 등 표고 생산 농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표고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25% 이상 추가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농가들의 현실에 맞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책의 적극적인 추진에 나선다.

김돈곤 군수는 축사를 통해 "농가들의 경영비 부담 가중, 농촌인력 고령화에 따른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라며 "올해도 현장 맞춤 지원책을 전개 할 테니 각 회원 농가는 고품질 안전 표고 생산에만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양=정상범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계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부동산 편의 노하우...

관광명소 방송 촬영지로 각광

당진시, 면천 읍성·삼교호 관광지 등 드라마·예능·유튜브 등 촬영



당진시가 문화유산과 어우러진 이름다운 경관과 대관람차 등 새로운 관광자원이 주목받으면서 드라마, 예능, 유튜브 등 촬영팀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당진시 관광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촬영됐으며, 방영 후 입소문을 타고 관광객이 찾아오며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주요 촬영 장소로는 면천 읍성, 삼교호 관광지 등이 있다.

면천 읍성은 1439년(세종 21)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았으며, 조선 후기까지 면천 지역의 군사와 행정을 담당한 면천 읍성은 성벽 및 객사 복원과 함께 최근에는 뉴트로 감성 여행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백종원의 '백스 퍼펙트' (2021) ▲채널A '고두심이 좋

아서' (2022) ▲KBS '1박 2일' (2023) ▲유튜브 강호동의 '강호동 네방네' (2023)에 소개됐다.

2023년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램프곡곡 100선에 선정된 삼교호 관광지는 예전부터 영화와 드라마 활용장소로 유명하며, ▲영화 오늘

의 연애 (2015) ▲인천상륙작전 (2016)과 ▲드라마 태양 속으로 (2003) ▲하이드 지킬, 나 (2015) ▲알고 있지만 (2021) ▲TVN 예능 '알쓸신잡' (2018) ▲TVING 드라마 '방과 후 전쟁활동' 등 무수히 많은 TV 프로그램에 담겼다. 또 한

2022~2023년 충남 내비게이션 검색어 1위에 오르며 많은 관광객이 방문했다.

이외에도 지난 4월 BTS 수가는 유튜브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슈가 사전'에서 여행 최적지로 당진의 바다를 추천해 큰 화제가 되었으며, 2017년 BTS 'MIC Drop' 뮤직비디오도 당진에서 촬영했다.

또한, 2021년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는 도비도 선착장, 2022년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학력고등학교가 등장해 관심을 끌었다.

한편, 올해에는 드라마 '블랙아웃', '심식이 삼촌' 등 당진에서 촬영한 방송 프로그램이 연이어 방영된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장 신년맞이 부서 방문

박경귀 아산시장은 3일, 오후 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본청 부서를 방문하며 직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직원 한명 한명과 인사를 나누며 지난 한 해 시민과 시민을 위해 헌신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24년 아산시가 가야 할 시정 방향에 대해 공유하며 자리를 마무리했다.

박경귀 시장은 "지난 한 해 너무 고생 많았고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일해주셔서 우리 아산시가 시민이 행복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명품 도시로 품격을 갖춰가고 있다. 너무 감사드린다. 24년도 시민을 위한다는 사명감으로 맑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 동네 현혈의 날' 지정 운영

당진시, 매월 1회 둘째 주 월요일 '생명 나눔·현혈' 실시



당진시는 지역 내 현혈의 집이 설치되지 않아 매월 1회 둘째 주 월요일(휴일인 경우 다음날)에 '우리 동네 현혈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8일 시청 주차장에서 2024년 첫 현혈의 날 캠페인을 실시한다.

당진시는 훌수 단원 시청 주차장, 째수단원 문예의 전당 주차장에서 현혈 버스를 통해 현혈할 수 있으며, 현혈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11시 30분, 오후 13시~16시이다.

장기간 보관이 불가한 혈액의 적정보유량인 5일분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혈이 필요하며, 코로나19 이후 현혈자가 급감하면서 현혈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대한적십자사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현혈자 혜택으로는 ▲10개 항목의 혈액검사 ▲현혈증서 발급 ▲현혈 1회당 4시간 봉사활동 인정 ▲소정의 기념품 ▲다회 현혈 시 적십자현혈유공패 수여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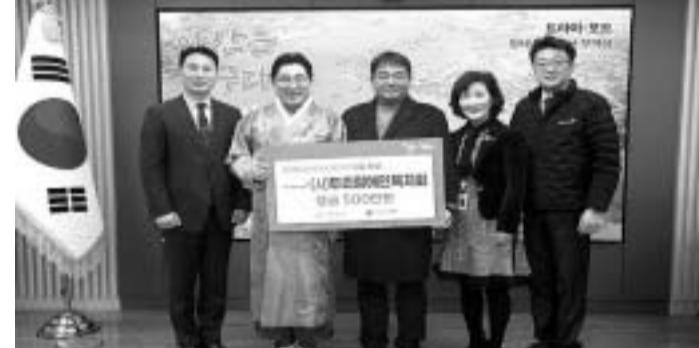
당진=최근수기자



한편, 아산시 긴급복지지원대 상자를 발견한 시민은 누구나 아산시청 사회복지과(041-540-2526)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

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하여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아산=리량주기자



(사)두리장아인복지회, 아산시에 500만 원 성금 전달 (사)두리장아인복지회 대표 고준희가 지난 3일, 아산시에 관내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경귀 아산시장, 고준희 두리장아인복지회장, 허성천 사업단장, 박정훈 인사노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고준희 회장은 "지역사회 어려운 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아산시와 지속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박경귀 시장은 "후원해 주신 성금은 관내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작년에 이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과 관심을 보여준 (사)두리장아인복지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청양 청남면 한파 기간 축산농가 점검

청양군 청남면(면장 한은규)이 면내 축사와 축사 내 전기 시설, 사료 보관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점검으로 농가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상 연료와 사료 넉넉히 준비해 두기 ▲전선 피복 상태 및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확인하기 ▲폭설에 따른 축사 내부 중간에 지붕 벼름목 미리 설치하기 ▲겨울철 질병 발생 위험에 대한 축사 청결 상태와 정기적 소독 여부 등이다.

한은규 면장은 "축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한파, 폭설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태안의 미래 먹거리가 될 해양치

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올해 7월 준공 목표로 막바지 종력전을 펼치는 한편, 연초 조직개편을 통해 해양치유센터(사업소)를 신설하고 소프트웨어 확충에 종력을 기울여 국내 대표 치유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서해의 농도' 격렬비열도의 위상 제고를 위해 '격렬비열도의 날' 제정과 '격렬비열도 서포터즈' 창단을 시도하는 등 '지도 속 예만 있는 섬'이 아닌 '국민들이 실제 오갈 수 있는 섬'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동문 개방의 결실을 맺은 안흥진성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정비 및 철조망 이설 작업을 통해 군민 문화유산 향유권 보장과 문화재적 가치 회복을 도모하고, 동안문 복원의 성과를 거둔 태안읍성의 경우 남동성과 복원을 통해 가치 극대화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태안읍 일대 역사문화거리 조성을 통해 중앙로 일대에 대한 지역 정체성 확립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태안=김정하기자

어린이공원' 조성 등 주민 휴식 공간을 확충하고 결혼 및 출산장려금의 경우 도내 최고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등 한 차원 높은 인구유입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매월 10만 원의 바우처 지급을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시작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어르신 영양데리기 사업'도 경로호친 분위기를 조성하는 상징적 시책으로서 지속적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도, 가 군수는 2년 앞으로 다가온 '2026 태안 국제 원예치유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해 조직위 출범 및 세부 시행 계획 수립에 나서는 한편, 도내 가장 체계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유치전의 경우 올해 결과 발표가 예정된 만큼 막바지 유치전에 종력을 기울여 안면도 유치의 성과를 입증하겠다는 각오다.

가 군수는 "올 한해 더욱 강한 태인을 위해 공직자들과 함께 열심히 밟고 뛰는 군수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우리/동/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박차

사각지대 없는 시민안전교육 통한 안전도시 계룡 건설

계룡시(이은우)는 시민들의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2024년 계룡시 안전교육 시행계획'이 하기 행정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시행계획은 사각지대 없는 안전교육을 실시해 시민 스스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를 통해 안전도시 계룡을 건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계획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행정안전부의 '제2차 국민안전교육 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시행하기 위한 계룡시의 연도별 안전교육 계획으로 962안전교육 추진체계 구축 ▲안전교육 활성화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확대를 중심으로 한 6개 분야 23개 영역에 대한 추진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부서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디중이용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 실태 점검 및 다양한 안전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계룡소방서와 함께 어린이, 아동 대상 소방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해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은우 시장은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시에서는 다양한 안전교육 및 철저한 대비를 통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계룡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됨은 물론 최근 발표한 '2023 사회안전지수'에서도 충청권 1위를 차지하는 등 명실상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서천군 아동복지통계 결과 발표

서천군, 아동복지통계 결과 발표

서천군이 지역 아동들의 인구, 보건, 사회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3년 아동복지통계'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공표했다.

군에 따르면 공표 자료는 2023년 7월 31일 기준 서천군 주민등록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료 등을 토대로 기준통계자료와 행정자료를 연계, 결합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행정통계로 ▲인구 및 세대 ▲인구동향 ▲건강 ▲복지 ▲교육 등 5개 분야 91개 항목을 분석했다.

2023년 7월 말 기준 서천군 내 만 18세 미만 아동인구는 4320명으로 군 전체 인구 4만 9477명의 8.73%를 차지했으며, 연도별로 비교하면 2021년 4,696명(9.25%), 2022년 4,486명(8.98%)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4320명의 아동 가운데 남아가 2202명, 여아가 2118명으로 성비는 96.16을 보이고 있다.

행정구역별로는 서천읍이 1888명(서천읍 전체 인구 중 14.52%)으로 인구수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시초면과 문산면이 각 49명으로 가장 낮은 인구수를 보였다.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전합한 아동은 총 498명이며, 전입 사유로는 주택(36.9%), 가족(30.5%), 교육(14.8%), 직업(7.6%), 기타(10%, 교통, 건강 등) 등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는 2022년 133명으로 2020년 170명을 기점으로 2021년 160명 등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다문화 출생아 수는 2022년 8명으로 해당연도 전체 출생아 수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20명(11.7%), 2021년 16명(10%)으로 나타났다.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을 살펴보면 2022년 전체 출생아 수 133명 가운데 30~34세가 58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35~39세(31명), 25~29세(29명), 40~44세(10명), 20~24세(5명)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 아동인구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 기준 총 4486명의 아동 가운데 4380명(97.6%)이 기입되어 2020년 4961명 중 4844명(97.6%), 2021년 4696명 중 4586명(97.6%)과 비교해 매년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분야 통계에서는 2023년 7월 말 기준 서천군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308명 중 아동이 264명으로 전체 아동수 4320명 중 6.1%를 차지하며, 일반 수급자 253명, 시설 수급자 11명으로 파악됐다.

아동인구 중 장애인 등록자는 74명으로 전체 아동 중 1.7%를 차지하고 신체적 장애 24명, 정신적 장애 50명이다.

장애 정도로는 심한 장애인이 61명,軽한 장애인이 13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기준 아동복지 관련법에 의한 소년소녀가장(지원금 수급자)은 없으며, 위탁가정(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수급자)은 19명, 입양아동(입양아동 양육수당 수급자)은 12명으로 확인됐다.

교육분야는 2022년 말 관내 어린이집은 국공립 3개소, 사회복지법인 9개소, 법인·단체 4개소, 민간 4개소, 가정 1개소, 직장 1개소로 총 22개소가 있다.

지역 내 학교의 교직원수는 교원 647명, 사무직원 312명으로 총 959명이며 교원 1인당 학생수는 평균 6명이다. 유치원은 18개소가 있으며, 원아수는 177명이 있다.

학교와 학생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18개소 1641명 ▲중학교 9개소 362명 ▲고등학교 7개소 1246명으로 취학에 있어 적령에 취학한 아동은 총 243명 중 242명이며, 유예 및 과정아가 1명이다.

서천=김태선기자

논산 계룡 서천 부여

김영병 철통 보안 기관 표창 '4관왕' 쾌거

논산시, 불철주야 건강한 논산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 인정 받아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김영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4개 분야에서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논산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흥보 영상 제작, 외국인 김영병 관리 건강점진사업 추진, 생활터譬김영병 예방교육 진행, 질병관리모니터링 운영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김영병 예방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이 인정되어 질병관리청 주관 '2023년 김영병 관리 콘퍼런스'와 '2023년 결핵 및 잠복결핵 김영 검진사업 평가대회'에서 질병장상 수상했으며, 충청남도로부터 국가예방접종 분야와 김영병 역학조사 분야에서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



로부터 국가예방접종 분야와 김영병 역학조사 분야에서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논산=김태선기자

19 예방접종률 향상과 만성질환 김영병 관리에 기여한 공무원 3명이 충남도지사 표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한미옥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의 김영병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김영병 예방 사업을 통해 건강한 논산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년도 하반기 Best 친절 공무원 표창 수여
부여군의 친절 미소를 만나다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난해 12월 26일, 2023년 하반기 Best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종합민원직과 협선영, 산림녹지과 이석화, 보건소 김경완, 은산면 이우섭 주민관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박정현 군수는 "브랜드 회화기자 3,929억원의 굿즈라 상품(농산물, 가공식품)의 2023년 매출액은 2022년에 실시한 경영평가 결과인 2,790억원보다 약 11% 상승한 3,092억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상품의 주요 소비자 분석 결과 서울, 경기 지역 61.5%, 대전, 세종, 충남 37%, 기타 1.5%로 수도권과 대전 충청권 98.5%를 차지했다.

설문은 사용승인조직의 주 생산 품목, 조합원 수, 매출액, 주요 소비자 등에 대해 세분화한 항목의 답변을 취합·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굿즈라 사용승인조직의 평균 영농 경력을 20.95년이며 전체 65개소 중 여성 CEO는 7명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굿즈라 상품(농산물, 가공식품)의 2023년 매출액은 2022년에 실시한 경영평가 결과인 2,790억원보다 약 11% 상승한 3,092억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상품의 주요 소비자 분석 결과 서울, 경기 지역 61.5%, 대전, 세종, 충남 37%, 기타 1.5%로 수도권과 대전 충청권 98.5%를 차지했다.

조직 대표가 신뢰하는 품질인증은 무농약 > HACCP > 유기농 > GAP 순이었으며, 공동브랜드에

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단, 사용하지 않은 카드 잔여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 모두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문화 소외계층이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 안내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여=김성구기자



정향읍 빌전협의회 올해 신년교례회 열려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주민들의 염원을 가득 담은 서천군 정향읍 빌전협의회(회장 박홍립) 신년교례회가 지난 3일 서천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김기웅 서천군수를 비롯한 관내 기관단체장 및 지역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덕담과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며 지난해의 업적과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박홍립 협의회장은 새해 인사를 통해 "청룡은 태양이 둘러싸고 있는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의미한다"며, "정향읍민 모두가 단결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전했다.

김기웅 군수는 "정향읍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며, "우리 군이 올해도 순풍을 타고 나아갈 것을 기대하며 지역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 논산의 자부심을 일깨우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부분 소액으로 다수 기부자가 기부했다는 점에서 제도를 통해 전국 각지로부터 논산에 가치 변화에 관심을 유도하고, 우수한 담배품을 홍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기부금 모금에 성공한 비

결은 백성현 논산시장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기부 활동과 혁신적인 기획에 있다.

백성현 시장은 경기침체로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기부자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담배품을 선정하고, 논산시의 자부심을 담아 자자체에 직접 품질 관리를 통해 최고의 품질을 보장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모금된 고

향사랑기금이 같이의 가치를 드높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계좌에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 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계룡시 '2024년 문화누리카드' 신청하세요

모든 취약계층 대상… 영화·공연·여행 등 문화생활 지원

계룡시(시장 이은우)가 취약계

층의 문화생활 향유를 도모하기 위한 '2024년도 문화누리카드' 사업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생활을 하기 어려운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조직 65개소를 현장 방문, 맞춤형 경영 평가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2023년 굿즈라 경영 체 자료를 구축했다.

카드 발급은 오는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면·동사무소 또는 문화 누리 카드 홈 페어 지(www.mnuri.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빙길자는 자격이 변동되거나 않는 한 자동으로 충전되는 만큼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대상자는 카드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공연, 영화, 도서, 음반 등 문화·여행 분야에 가맹점

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단, 사용하지 않은 카드 잔여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 모두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문화 소외계층이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 안내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계룡=김성구기자

서천군 '청년 Cheer-up(취업) 지원사업' 신청·접수

취업난 해결 위해 면접수당·취업성공수당·근속수당 등 지원

서천군이 청년의 구직활동과 장기

근속수당은 직년보다 2년 원이 인상된다.

20일까지 '청년 Cheer-up(취업)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서천군에 거주하는

회 5만원씩 최대 6회 지원 ▲취업성공 후 4개월 경과 시 1회 한정 취업성공수당 50만원 지원 ▲취업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근속수당 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분이 지급된다.

지원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 서천군 청년정책과에 제출

된다.

지원 혜택으로는 ▲면접수당 1

면접수당 6000원, ▲취업성공수당 10만원, ▲근속수당 20만원이다.

이번 신청은 2023년 기부목표액 1억 원

동정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최원철 공주시장은 5일 오후 2시 청장실에서 열리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에 참석했다.

월남전 참전자회 성금기탁식

이완설 서산시장은 5일 오전 10시 서산시청 시장실에서 열리는 월남전 참전자회 성금기탁식 참석, 오후 3시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유해아생물 피해방지단 단원 위촉 및 교류 참석.

한국관광공사 감사패 전달식

박범인 금산군수는 5월 강원도 원주시에서 열리는 한국관광공사 감사패 전달식 참석.

보령시 응천읍 성동2리 외성마을 급식소 준공식

보령시는 지난 27일 마을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응천읍 성동2리 외성마을 급식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외성마을 급식소는 '성동2리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960㎡, 지상1층 규모로 설립됐다.

이율리 마을주민의 편의와 후식을 위해 외성두레방 및 광장을 함께 조성했으며, 지역 역량강화를 위해 ▲두레일을 프로그램 ▲성동화합의 장 ▲지역리더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준공식은 급식소 제막식을 시작으로 개회사, 경과보고, 종식 및 선물증정, 장기자랑, 노래자랑 등 마을주민이 함께 모여 화합의 장을 이루었다.

임성모 주민위원장은 "성동2리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마을 급식소는 단순히 급식소의 역할뿐만 아니라, 주민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는 공간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금산군 군민과의 소통광장 마련

박범인 금산군수는 푸른 용의 해를 맞아 군민과의 소통광장을 마련한다.

이번 일정은 국장 및 담당관,과장 등이 동행한 가운데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추진되며 10개 읍면을 방문해 현장중심 소통 행정을 위한 군민과의 대화를 추진한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건의사항은 각 담당 부서에서 검토 후 군정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의견을 간소화하고 읍면 주요사업과 군민 관심사업 설명 및 민원‧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군민 중심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읍면별 방문계획을 살펴보면 △8일 금성·진산면 △9일 부리·추부면 △15일 군북·남이면 △16일 제원·복수면 △17일 남일면·금산읍 순으로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군민과의 대화는 군수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군정 방향에 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희망 군정을 위한 자리"라며 "군민들을 찾아뵙고 평소 생활 현장에서 느꼈던 견의사항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일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보령시, 기회발전특구 앵커기업 유치 신년인사 서한문 발송

“유망기업의 신·증설 견인”

보령시는 충남지역특성화 업종을 고려한 대기업, 혁신기업, 에너지, 식품, IT융합 기업 200여곳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투자유치를 요청하는 신년인사 서한문과 홍보물을 발송했다.

김동일 시장은 보령시 주요산업 육성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기업투자를 독려하는 서한을 비롯해 탄소중립 기회발전특구 홍보전단을 기업에 발송하는 등 투자유치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홍보물은 보령시가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략을 반영하여 수도권 이전 또는 신·증설 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구하는 내용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블루수소 플랜트, 공공주도 해상풍력, 분산에너지특구 등에너지 중심 미래 산업을 소개하며 보령의 경제성장 청사진을 제시한다.

</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 오봉산 산신암 김향란 주지... 갑진년 첫 정기 기부 실시

새해 시작을 응원하는 연이은 기부식 진행

㈔오봉산 산신암 김향란 주지는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부유, 이하 '협의회') 세종광역 푸드뱅크 기부식품 물류센터를 방문해 향란코너 1월 정기기부식을 진행했다.

이번 기부물품은 떡국떡, 사골곰탕, 고추장, 간장, 대추, 카눌리유, 라면, 과자류 등 200만원 상당의 식료품으로 협의회 푸드마켓 이용자들에게 꼭 필요한 품목들로 구성되었다.

김향란 주지는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협의회와 함께 다양한 기부활동에 앞장섰으며 2021년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2022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의 날 기념식' 대상을 수상, 2023년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오봉산 산신암이 단체부문으로 세종시장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쳐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

김향란 주지는 "2024년 갑진년, 푸른 용의 해에도 이어서 기부를 할 수 있어 뜻깊다. 푸드마켓 대상자들이 향란코너의 물품지원을 통해 용기와 희망을 얻고 풍요를 상장하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다.

이어 지난 3일(수) 세종송담교회(담임목사 임명성)은 새해를 맞이하여 주전자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30상자를 기부하였다.

이름동에 소재하고 있는 세종송담교회는 2020년부터 정기적으로 지역사회에 주전자

후원을 이어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주전자님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교회의 성도들이 주전자님에게 식료품, 생필품 등 다양한 물

건과 따뜻한 마음을 담아 교회를 통해 협의회에 기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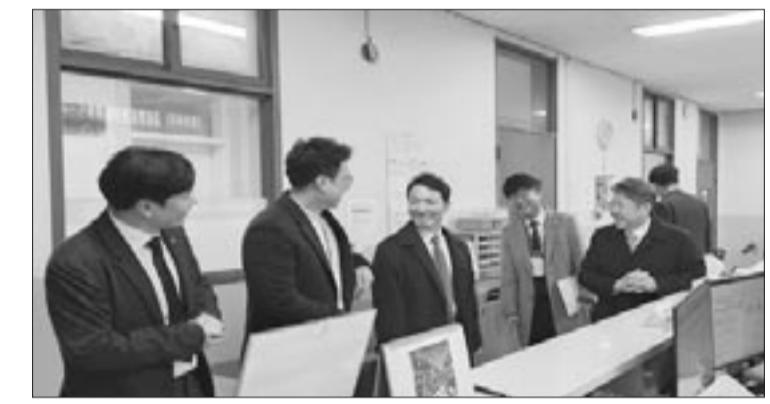
세종송담교회 임명성 담임목사는 "주전

자 상자를 통해 세종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번 주전자님은 상자는 세종송담교회 청소년부가 주관하여 진행하였다. 이 나눔 상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종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협의회 김부유 회장은 "2024년에도 잊지 않고 협의회를 찾아 따뜻한 후원으로 새해를 열어주신 후원자분들에게 감사하다. 2020년 6월부터 매달 놓치지 않고 정기기부를 이루어 주신 김향란 주님과 2021년부터 매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세종송담교회 성도님들의 따뜻한 마음을 감사히 생각하며 소



충남도립대, 산학협의체와 상생·발전 뜻 모으다 충남도립대는 3일과 4일 양일간 대전 유성 호텔에서 '2023년 산학협의체 성과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도내 산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건양대 김용하 총장, 직원 만나 새해인사 겸 글로벌화 의지 밝혀 건양대학교 김용하 총장이 2024년 새해를 맞아 3일 논산창의융합캠퍼스 각행정 사무실을 찾아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안전비행 달성하자! 산림청 청약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종렬)는 지난 3일 청양군 철갑산 총훈련에서 2024년 안전비행을 다짐하는 안전결의 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 전 직원이 참석해 2024년 갑진년(甲辰年) 11년 무사고 안전비행 기록 달성을 목표로 결의문을 낭독했다.



코닝정밀소재(주), 희망2024나눔캠페인 이웃사랑 성금 2억9600여만원 기탁 코닝정밀소재(주)가 3일 오후 코닝정밀소재 드림스페이스에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성우종)에 희망2024나눔캠페인 성금 2억9635만6000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코닝정밀소재 이재형 상무, 박석규 그룹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희영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당진시노인복지관 김남순 생활지원사

당진시 사회복지대상 수상



당진시노인복지관 김남순 생활지원사가 지난 12월 27일, 당진시복지재단에서 진행된 당진시 사회복지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 복지 종사자를 위하여 앞장서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를 발굴해 널리 알리고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행사이다.

사회복지대상을 수상한 김남순 생활지원사는 당진시노인복지관에서 생활지원사로 10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히 업무에 임했다. 또한 당진시 효돌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귀감이 되었으며, 생활지원사들을 대표해서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10년 동안 어르신들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감사하고 행복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최태선 관장은 "사회복지현장에서 대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모든 사회복지종사자 분들이 있어 든든하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표창할 수 있는 일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당진=최근수기자

대전하나시티즌, 1차 전지훈련지인 베트남 하노이에서 국제 친선 축구대회

대전하나시티즌이 1차 해외 전지훈련을 진행하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해외 구단들과 국제 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2023시즌, 8년 만에 1부리그에 부대에 도전장을 내민 대전은 화끈한 공격 축구를 앞세워 승격팀 돌풍을 일으키며 일찌감치 1부리그 진급을 확정지었다. 이쉽게 파이널 A 그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54득점을 올리며 울산현대, FC서울에 이어 K리그1 득점 순위 3위를 기록하는 등 확실한 대전만의 축구 컬러를 자리매김하며 2024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드높였다.

1부 리그승격 2년차인 2024시즌, 더욱 높아진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대전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1차 해외 전지훈련을 갖는다. 전지훈련 기간 동안 하나은행과 현지 최대 은행인 베트남투자개발

은행(BIDV)과 함께 베트남 국제 친선 축구 대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팀들과 실전 경기를 치르며 기량을 점검하고 모기업과 연계해 아시아 무대에서 축구를 통한 국제 교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

대회 기간은 1월 22일부터 28일까지이며 하노이 항得意이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항得意이 경기장은 22,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경기장으로 미린 국립경기장이 완공되

기 전에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의 홈구장으로 사용되었다. 현재는 베트남 리그의 하노이FC, 하노이 폴리스FC의 홈 구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18년 울산현대와 베트남 국가대표팀의 친선경기가 개최되기도 했다.

참가팀은 대전하나시티즌과 하노이FC, 하노이 폴리스FC, 밸리 유니아이티드 총 4팀이다. 하노이FC는 우승 6회, 준우승 5회 등

베트남 최상위 리그인 V리그1을 대표하는 강팀으로 꼽힌다. 하노이 폴리스FC 역시 하노이를 대표하는 팀으로 2022년 V리그2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V리그1에 복귀했다.

2023시즌에는 승격 첫해, V리그1 우승을 차지하며 저력을 증명했다. 밸리 유니아이티드 FC는 인도네시아 Gianyar(기야나르)를 연고지로 하는 축구 팀으로 2019시즌과 2021-2022시즌리가1 우승을 기록했다.

대회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팀당 2경기를 진행한다. 23일 첫 경기를 시작으로 27일에 결승전이 개최된다. 대전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하나은행, BIDV와 협업을 통해 하노이 시민들과 현지 교민들이 축구로 화합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고, 비시즌 축구 팬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정환기자

성해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제공 가능한 때 뜻한 치를 준비할 예정이다.

장철민 의원은 "대전의 온전 숙원이었던 대전의료원 건립부터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통과와 예산 확보, 대전혁신도시 지정, 철도 소음 저감사업 지정, 5개 공공기관 동구 유치 등 동구 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고 자부한다"면서 "지난 4년 동안 이룬 크고 작은 성과들은 지역주민들이 함께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동구가 키운 장철민이 동구를 더 크게 키우기 위해 앞으로도 쉽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기 위해 의정보고회를 준비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정복기자

특히 의정보고회 사전행사에서는 '숫자로 보는 장철민'을 주제로 한 포토월에서는 장철민 의원이 방문하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기념사진 활용을 진행하며, 추운 날씨를 대비하여 빠디방을 패러디한 '월디방'을 조성해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제공 가능한 때 뜻한 치를 준비할 예정이다.

장철민 의원은 "대전의 온전 숙원이었던 대전의료원 건립부터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통과와 예산 확보, 대전혁신도시 지정, 철도 소음 저감사업 지정, 5개 공공기관 동구 유치 등 동구 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고 자부한다"면서 "지난 4년 동안 이룬 크고 작은 성과들은 지역주민들이 함께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동구가 키운 장철민이 동구를 더 크게 키우기 위해 앞으로도 쉽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기 위해 의정보고회를 준비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의정보고회 사전행사에서는 '숫자로 보는 장철민'을 주제로 한 포토월에서는 장철민 의원이 방문하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기념사진 활용을 진행하며, 추운 날씨를 대비하여 빠디방을 패러디한 '월디방'을 조성해

장철민 의원은 "대전의 대전환' 1360일 간의 여정, 토크콘서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4년간의 의정활동 기록을 담은 의정보고회를 연다.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대전의 대전환'

이라는 주제로 5일 오후 7시 대전대학교 혜화문화관 블랙박스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장철민 의원을 소개하는 사전 영상 시청과 함께 내빈소개, 현장 축사와 영상축사, 의정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 사회는 과성열 전문 MC가 맡는다. 현장 축사는 박범계, 조승래, 홍문하

대전대학교-자율주행을 위한 정밀 도로지도 성과 창출

자율주행차량용 고해상도 MAP 및 객체 인식 기술 개발 성과

지원 성과보고회'에서 '자율주행차량용 고해상도 MAP 및 객체 인식 기술 개발 성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DSC 지역혁신플랫폼은 대전의 연구 역량, 충남의 제조인프라, 세종의 자율주행 시장 국가사업을 연계되어 2021년부터 시작되었고, 대전·세종·충남 지역기업의 모빌리티ICT 핵심분야 지원을 통해 지역 인재의 역량 강화, 산업체 기술 고도화 및 지역산업 발전 도모를 목표로 글로벌 선도기술지원 사업이 2023년에 진행됐다.

AI융합학과 홍용근 교수는 주어별리티시스템즈가 수행하고 있는 자율운송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국토지리정보원의 정밀도로

지도 활용에 있어서 정밀도로지도 결족지 문제 해결을 요청 받았다.

주어별리티시스템즈는 자율 운송 시스템 테스트베드로 한진택배 군산지점과 전주 택배센터 간의 21번 국도를 설정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해주는 21번 국도의 3차원 정밀 도로지도의 결족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AI융합하고 학생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했다.

정밀 도로지도의 결족지는 중앙 분리대 변경으로 인한 끊김, 실제 도로선을 인식하지 못해서 끊김, 경계선·경계 가드레일·외벽 등으로 확인되어 꼭짓점 도구를 사용하여 기준 레이어에서 객체 추가 기능 활용 및 점 위치 확장, 점을 추가하여 노드 생성 방법 등 정밀 도로지도 결측지를 보완했다.

송병배기자

대전대학교(총장 남상호) AI융합학과 홍용근 교수는 지난해 12월 27일 충남대에서 대전·세종·충남(DSCI) 지역혁신플랫폼에서 '글로벌 선도 기술지원 사업 2023 기업





당진시, 2024년 갑진년(甲辰年) 여성계 신년회 개최 당진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종선)는 지난 3일, 설악웨딩티운에서 2024년 갑진년(甲辰年)을 맞아 지역 내 여성계 지도자와 지역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인사와 더불어 당진의 새로운 도약과 협력을 다지는 여성계 신년회를 개최했다.



조희송 금강청장, 보령최정수장 현장방문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은 4일 오후, 동설기 취·정수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보령댐 및 보령정수장 현장을 방문하여 겨울철 안전사고 없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령시, 대천여자고등학교 문화융복합공간 목련서원 개관 보령시는 4일 김동일 보령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천여자고등학교 문화융복합공간 목련서원 개관식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안필용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기장동 통장협의회 인사 더불어민주당 안필용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4일 오전 기장동 통장협의회 인사를 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 쪽방촌 거주자 난방용품 나눔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가 쪽방촌 거주자에 난방용품을 기부하여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을 실천했다. 공사는 대전광역시자원봉사연합회(회장 김영태)와 협력하여 쪽방촌 거주자에게 난방용품을 위해 110만원을 기부했다.



건양대 인공지능학과, 자율주행차 전문가 양성 교육 진행 건양대학교(총장 김용하) 인공지능학과(학과장 박종우)가 2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인공지능학과 재학생 20명을 대상으로 'AWS DeepRacer'로 배우는 자율주행차 전문가 양성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신년 업무보고… 새로운 비전 달성을 위한 속도감 있는 실행 다짐

'기후위기 대응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4일 오전 신년 업무보고를 시행하고 기후위기 시대 물문제 해결과 새로운 물의 가치 창출로 글로벌 혁신 물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구체화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국민과 국가, 지역, 기업의 관점에서 사업 및 경영 전반의 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한 데 이어 올해는 전략 실행에 집중할 예정으로, 5대 중점 추진 과제 실현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2024년을 신비전 달성을 위한 실행의 원년으로 삼아 더 높이 도약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먼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고 물 걱정을 덜기 위해, 국가 이‧ 치수의 핵심인 물그릇 확충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신규 댐 건설과 기존 물그릇 정비, 대체 수자원 개발을 통해 물그릇을 키우고 이를 활용하여 침단산 암뿐 아니라 물 소외지역에도 부



족할 없이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둘째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을 만들고 과학적으로 관리한다. 오염원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오염원 저감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녹조를 예측, 분석하고 사전 예방 조치를 실행함으로써 녹조의 발생부터 사멸까지 전 주기를 촘촘하게 관리하는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셋째로, 물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과 공급을 확대하여 수출 기업이 직면한 녹색 무역 장벽을 해소하고 국가 탄소 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기업, 지역과 상생 협력하여 수상태양광, 조력, 수열, 그린수소 등 재생

에너지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직접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한다.

다음으로 이 모든 물 관리 전 분야를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디지털 대전환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미 5대 강 유역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하여 물 관리에 적용하고 있으며, 화성 AI 정수장은 세계 경제 포럼(WEF)에서 '글로벌 등대'로 선정되는 등 한국수자원공사의 디지털 물 관리 기술력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물 관리 혁신센터 구축과 융합 플랫폼 창출을 통해 과학적 물 관리 의사 결정 체계

기반을 만들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미지막으로 디지털 물 관리 기술, 첨단 수처리 기술을 향상하고 물 산업 생태계 혁신과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어젠다를 선도함으로써 세계 수준의 물 기업으로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2024년 사우디로 수출하게 되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은 성공 모델로 삼아 물 관리 시스템 및 디지털 기술을 상품화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윤석대 시장은 "빈틈없는 물 관리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당부하며, "새로운 물의 시대에 부합하도록 물, 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기업과 지역을 속도감 있게 지원함으로써 민생경제 회복과 역동적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탄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기술 혁신과 혁신센터를 달성을 하여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정복기자



태안해양경찰서장

일선 치안현장 점검

태안해양경찰서장(임재수 총경)은 3일 일선 치안 현장인 모항파출소를 방문해 해양사고 및 밀입국 사고 취약 항·포구 등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관내 밀입국 취약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밀입·출국 취약지 관리 실태를 확인하며,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항·포구 및 갯바위 등 연안 사고 취약 해역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긴급구조 태세를 위한 구조장비(연안구조정 등) 점검 및 안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파출소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임 서장은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밀입국 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안전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안=김정한기자

목원대학교, 경찰대와 교육·연구 협력 업무협약

상호발전 위한 유기적 협력 및 교류 활성화 "서로의 강점 공유"



목원대학교(총장 이희학)는 4일 경찰대학(학장 김수환)과 '상호발전을 위한 유기적 협력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대학은 유대를 강화하고 학술 및 행정 분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목원대와 경찰대는 협약에 따

라 학술·정보·교육시설·인력 등의 상호 교류, 교육·연구사업의 공동 참여 및 지원 협력, 교육·연구 장비나 시설의 공동 활용 등을 협력하게 된다.

경찰대가 보유한 치안 분야 전문지식과 대전 최초의 명문사학인 목원대가 죽적한 노하우가 어우러져 경찰제도 및 지역사회 발

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고 있다.

김수환 경찰대학장은 "경찰대학과 목원대는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상호협력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다"라며 "이번 MOU를 통해 두 대학이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인재를 양성하고 더 나은 교육 및 연구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희학 목원대 총장은 "치안 인재 양성의 중추 기관인 경찰대학과 서로의 강점을 공유해 더 좋은 교육·연구 환경을 만들게 됐다"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주명선 진흥원장 취임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은 제2대 진흥원장으로 주명선 원장이 지난 2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대전상의·대전세종충남 경제단체협의회,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개최 대전상공회의소 정태희 회장이 4일 오전 11시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대전상의 회장단과 대전세종충남 경제단체협의회 단체장, 사무국 임직원 등 30여 명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분향하고 있다. 이들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현화와 분향 등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새해 각오를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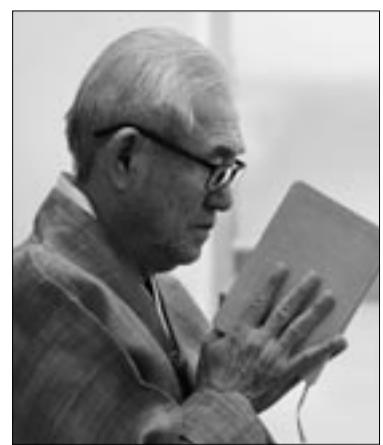
본사 손님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최종규 대전 대덕구청장



천명일 '이야기천자문'

日月盈仄 <日월일 月월일 盈 칠 영 仄 기울 측>



천명일

해는 매일 뜨고 지며 달은 보름에 차고 기운다

역易에 말하기를, 일중즉일中則 이요 월영즉월盈則虧이다.

주역에 의하면 해는 매일 중천에 가득하다가 서천으로 기울고 달은 보름을 채우고는 서서히 이지려진다고 했다.

여기서 '기울 측' '자와 '촬 영盈' 자를 보자. '측' '자는날 일자' 밑에 집 암자를 쓰고 그안에 사람인 자가 들어 있다. 기울즉 자의 자 상字相은 태양 자체는 다른 천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떠 있으나,



사람들이 보는 위치 여하에 따라

마치 해가 뜨고 지는 것같이 보인다는 의미이다.

'촬 영盈'자는 그릇에 물이 서서히 차서 넘쳐 흐르는 이치를 달의 변화에 대비시켜 쓴 글자이다. 달이 그릇 속에 담겼다 넘쳤다 하는 물처럼 천체 운행 여하에 따라 그 모양새가 둥글다가 이자려졌다 함을 촉 영盈, 이자려질 휘루자가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달은 지구와 해 사이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신세이다.

이와 같은 징황을 촉 영盈자가 시사하고 있다. 그릇에 물이 가득차 면 널친다는 회의 문자로되어 있다.

시의 향기



현영길 시인의 '서울찬가'

모두가 다 소중하다

삶은 행복이란?
눈 깔고 살 떠올려 본다.
소망 짐 장만했을 때 기쁨인가?
어떻게 진학한 대학 졸업 때 기쁨인가?
사랑하는 이내 만나 가정 이룬 것일까?

회사 진급 할 때 기쁨인가?
다 소중하다. 그때 삶은 행복 있는가?
비로 임을 만난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 준다 해도 밖을 수 없는
나의 임이 계신다는 것 이보다 더 큰
행복 있었는가? 이보다 더 큰
소망 없기 때문이라네!

▶작사 노트: 어린 추억 떠올려 본다. 가난했던 시절 수없이 이사했던 골목길 그래도 행복했던 이유 부모님께서 함께 계셨던 그 시절이 그립다. 인생 행복을 찾아 떠나는 인생인가? 그 여행에서 임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임이 계시기에 이 땅은 소망이 있다. 임이 계시기에 큰 행복이 넘치는 이유이다.

기고

2024 갑진년 '청룡의 해': 용, 꿈을 꾸다



천진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문화박사

속답까지 생겨날 정도로 오랜 옛날부터 상상으로 정형화된 형상을 갖고 있다.

16세기 중국 명나라의 이시진이 폐낸 약학서인 「본초강목」에서는 용을 이렇게 설명한다. "머리는 낙타 같고 뿔은 사슴 같고, 눈은 토끼 같고, 귀는 소와 같다. 목은 벤과 같고, 배는 신과 같고, 비늘은 잉어와 같고, 발톱은 매와 같으며 발바닥은 범과 같다. 그리고 등에는 81개의 비늘이 있어 9.9의 양수를 갖췄으며 그의 소리는 구리판을 때리는 것 같다. 입기에는 수염이 있으며 턱밑에는 구슬이 달리고, 목 아래에는 거슬 비늘이 있으며 머리에는 박산이 있는데 또 척복이라고 한다. 용에게 이 척복이 없으면 하늘에 오를 수 없다. 기운을 토히면 구름이 된다."

이처럼 날짐승, 물짐승, 물짐승의 여러 동물이 가진 최대의 강점과 장점을 만족시키고자 하면 최고의 존재가 되도록 남음이 있다.

용은 조화의 능력이 있다. 고대 중국 저서인 『관자』 「수지」 편에 따르면 "용은 물에서 나며, 그 색깔은 오색을 미음대로 변화시키는 조화 능력이 있다. 작아지고자 하면 번데기처럼 작게 오므리 될 수 있고 커지고자 하면 천지를 덮을 만큼 부풀 수 있다. 높이 오르고자 하면 구름 위로 치솟을 수 있고 밑으로 내려가고자 하면 깊은 산 속의 밑바

막까지 잡길 수 있는 변화무형하고 상하무한 신"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용은 모습을 미음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자유자재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숨기기도 한다.

이와 함께 용오름의 기상 현상을 용의 승천으로 본 사례는 기록과 설화에 자주 등장한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18년 제주 안무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고가 올라왔다.

"제주 정의현에서 다섯 마리의 용이 일시에 승천하였으며 그 중 한 마리가 되돌아와 수풀 속을 휘감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를 두고 조정에서는 "용이다,

아니다"라는 4년 동안의 논쟁을 거듭한 끝에 상세한 조사보고를 다시

안무사에게 지시했다.

제주 안무사가 아뢰기를, "고로

(古老)에게 방문하니 지나간 병진년 8월에 다섯 용이 바닷속에서 솟아올라와 네 용은 하늘에 올라갔는데

운무가 자우루하여 그마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한 용은 해변에 떨어져 금물두에서 농복악까지 물으로

갔는데 풍우가 거세게 일더니 역시 하늘로 올리갔다 하였고 이것 외에는 전후에 용의 형체를 본 것이 있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용오름 현상을 하늘로 승천하는 용의 모습으로 상상한 것. 화려한 비단이 불어 바닷물이 하늘로 치솟아

올라 마치 바다와 하늘을 연결되는 현상을 용의 승천으로 본 것이다.

용은 여의주와 물·비·바람·구름을 만나고 뿐이 나아만 승천할 수 있다.

용이 하늘에 가려면 여의주·물·비·바람·구름이 필요 하듯이 사람이 출세를 하려 한다거나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면 주위 여건이 맞아야 한다. 목마른 용이 물을 얻거나 비를 만난 겪은 고생 끝에 좋은 운을 만나서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용은 어려운 과정을 잘 견디어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뛰어난 인물이 되는 것에 비유되는데, 한국인이 꾸는 동물 꿈 중 용은 최고의 길동으로 꼽힌다. 특히 용꿈은 출룡한 아들을 낳는다는 의미로, 태동으로서 최고의 꿈이다. 또 용의 승천은 입신출세, 곤등용을 뜻한다.

다양한 이미지와 관념의 복합체인 용은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위엄과 권위, 기운과 성취, 벼사와 진경 등 용의 상징성은 각각 독립적인 양상이 아니라 복합된 일체다.

갑진년 새해의 수호 동물을 청룡이다. 정조에 한 해를 새로 시작하

면서 그 해를 상징하고 수호하는 데 동물의 떡성을 해운(年運)이나 덕담으로 주고 받는다. 승천하는 청

룡처럼 새해에는 모든 이들이 '용,

꿈'을 꾸면서 희망과 바람이 이뤄지길 소망한다.

2024년 갑진년 새해는 용의 해다. 용띠 해는 12년마다 갑진, 봉진, 무진, 경진, 임진의 순서로 60갑자리를 순환한다. 갑진년 용띠는 십간의 갑이 오방색으로 정색이어서 '청룡의 해'가 된다.

실존하는 어떤 동물보다도 용은 최고의 권위를 지닌 최상의 존재다. 용은 입장을 상징하며, 나리를 보호하고 법률을 수호하는 호국신이자 호법신이다. 용은 바람을 부르고 구름을 일으키며 비, 천둥, 번개와 함께하는 장엄한 비상과 승천하는 존재다. 민속에서 용은 물의 신이자, 풍농의 신, 변화와 조화의 신으로 신앙이 되어 왔다.

용은 생물학적 존재가 아닌, 문화적 동물이다. 용은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 낸 동물이지만, '안 본 용은 그려도 본 범은 못 그린다'라는

대전상의, '연구특구 내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 건의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정태희는 4월 연구개발특구 내 우수 연구인력 및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등부처, 국회의원 실(국민의힘 박성중·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과 '외국인 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를 건의했다.

대전연구개발특구 내 외국인학교는 연구개발특구법 법제화 및 글로벌 기업 유치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며, 타 외국인학교와 동일하게 외국거주 3년 이상이라는 내국인 입학자격 제한으로 인해 우수 연구인력의 이탈 현상은 물론, 글로벌 기업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역 국회의원들도 우수 연구인력 확보와 국내외 기업 유치, 대학특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만큼,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

대전상의는 연구개발특구 내 우수 연구인력 유치를 위한 교육 및 정주 요건 개선 마련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제학교와의 협력성, 연구개발특

구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에 따른 공익의 가치를 강화했다.

특히, 내국인 연구인력이 연구개발특구로 이주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요소가 바로 '자녀 교육' 이며, 현재의 연구개발특구는 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해 우수인력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내국인 연구인력은 자녀를 연구개발특구 내 외국인학교로 입학시키려 해도, 외국거주 3년 요건이라는 규제에 막혀 결국 엔 수도권과 제주도, 심지어 해외로 이주하는 일까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지역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전상의는, "연구개발특구 내 외국인학교는 대전과 광주 2곳이므로, 특구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에 따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입학자격이 완화될 경우 국내의 우수기업 유치는 물론, 신속한 인재 영입이 가능해져 우리나라 첨단산업 과학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당위성을 피력했다.

송병배기자

사설

수출 회복으로 성장 동력 확보해야

가장 큰 암초는 중국이다. 시장 자체가 침체 국면인지라 대중수출은 계속해서 감소할 전망이다. 중국의 첨단산업 굴기로 국내외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도 잃어가는 상황이다. 근대화 이후 재도약 기회이자 축복이었던 중국이 수출은 물론 내수를 삼豕하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더욱이 지금은 미·중 기술전쟁·보호주의적 통상 대전이 이뤄지는 격변의 시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모멘텀을 찾기란 쉽지 않다. 자유민주적·개방적 통상 질서로 회복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초체력을 다져야 한다.

핵심은 '수출 회복' 과정에서 나타날 원화 강세,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증세'에도 견딜 경제 체질을 만드는 일이다. 결코 쉰 일이 아니다. 필연적으로 원고불황과 소비·투자 침체 고통이 수반된다. 이를 극복할 주체는 기업뿐이다. 기술 혁신을 통한 원자재 절감, 경영 혁신을 통한 비용 감축,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그래서 '고기술, 고부가가치, 고임금'이라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고 선진 수출강국에 도달한다.

극단 유튜브 방송과 진영 정치,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협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헝기로 습격한 남성이 평소 평소 꽁지 과몰입자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 서울 일간지는 해당 남성의 거주지인 충남 아산시 주민들의 말을 인용해 '대통령 육을 많이 했다' '술을 마시고 민주당 육을 많이 했다' '정치 유튜브를 보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와 결이 다른 보도도 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정치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은 너무 뜨겁다. 정치가 해결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법·제도, 저출산 문제, 지방분권 등)에 관심을 기울여 좋겠지만, 현실은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나 비방에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극단적 진영 정치를 밀접으로 생각하는 정치인들과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유튜브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 우리 편이면 무조건 옳다는 확증 편향으로 상대편을 악마화하는 시민들도 많다. 진영을 약용하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지만 무비판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들도 자성이 필요하다.

이 대표가 시민의 헝기 공격을 받은 문제마

저 징거지자산으로 이용하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기자 찰일이다.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경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대통령이 민생은 뒷전이고 카르텔, 이념 운운하며 국민 분열을 극대화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권력과 정치, 이제는 그만 뛰어야 한다"며 문석열 정부로 회사를 돌렸다.

민주주의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적'이 아닌 '이유'로 만들고, 의견 대립을 다수 결론으로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극단적 대결과 증오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다. 삶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야 할 민주주의가 오히려 삶을 폐해하게 만들고,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이다. 정치인의 괴습이라는 결코 발생하면 안 될 사건이 발생했는데, 교훈을 얻기는커녕, 이미 증오와 분열의 재료로 쓰고 있다.

2024년 수소연료전지차(승용) 보조금 지원 대폭 확대

보령시, 수소차 보조금 3,750만원… 2023년 3,250만원서 500만원 추가 지급

보령시가 2024년 수소연료전지차(승용)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500만원 추가하는 등 지원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시는 수소차 보급을 위해 올해 약 18억원의 예산을 투입, 총 승용차 50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중 20%(10대)는 취약계층, 디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된다.

공해 없는 깨끗하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2020년부터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약 1만8000만원 지원하여 총 18대 보급 한 바 있으며, 올해는 50대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구매 희망하는 경우, 수소차 구매계약 체결 및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출고·등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신청서 작성 및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작·수입사에 관련 서류를 제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www.ev.or.kr/ps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연속하여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이상 개인 및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공기업으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구매하여 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이다. (*3년 거주 제한 필수 이행 사항입니다.)

현재 지원 대상자인 현대차그룹의 '넥쏘'에 한하여 지원금액은 대당 3,7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체 구매예상금액은 6,700만원~7,000만원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2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대상자 선정은 구매신청서 접수순으로 하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선착순 미감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홈페이지 공고·고시판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보령시청 에너

대전투데이

16 2024년 1월 5일 금요일

대전투데이

DT 대전투데이 연중 환경 캠페인

지구를 살립시다!



‘지구 온난화’ 지금 멈추지 못하면, 우리들의 내일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주 관 | 대전투데이

DTN
대전투데이

후 원 |

한국기계인고용촉진공단 대전지사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본부

KHFC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

대성리클린
대표이사 김경태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

AT
농수산물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브이케이테크주식회사
www.vktech.co.kr

(주) 제이콘
JCON

충청환경에너지(주)

주식회사 레일웍스
CONSTRUCTION & MAINTENANCE

INSGREEN
주식회사 인스그린

More than Chemistry
LG 화학
LG CHEM

Hanwha

TOS
Techno Solutions

대성리클린
주식회사

제이엔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성개발산업

에이치디포장건설주식회사